

1989년 이후의 미술사

1989년부터 2019년까지 드러내 보인 미술사들을 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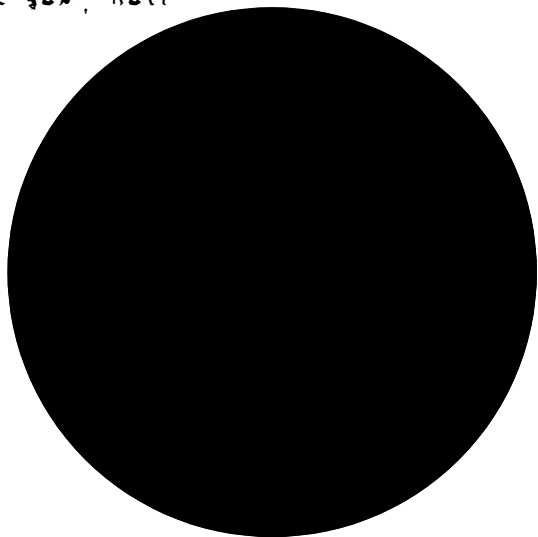
1989년

Le Sommaire des Travaux 1995-2015 de Gun, N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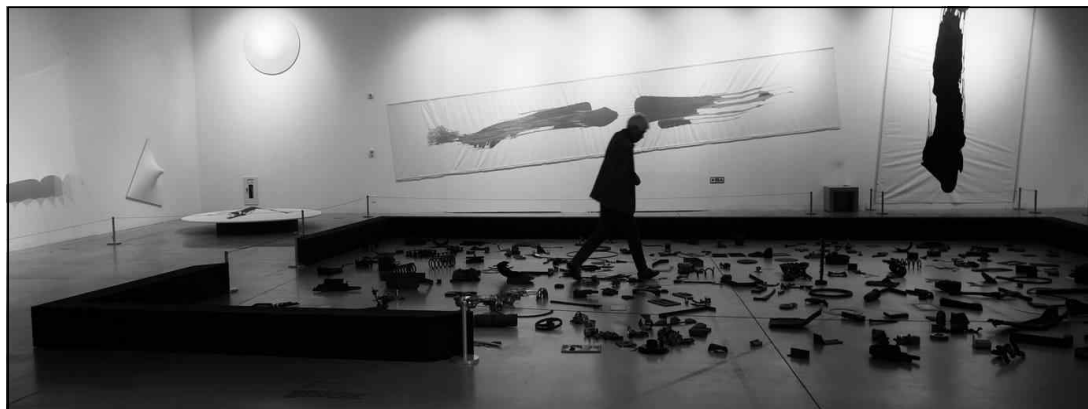


Gun, Nuri

g n r i
u u
m



지난 미술사들을 쫓으면서 새로운 소박함을 다시 찾아내어 새로운 바탕이 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349에 서울 시립보신미술관 김부리가 보인 미술사이다. 빛박이, 안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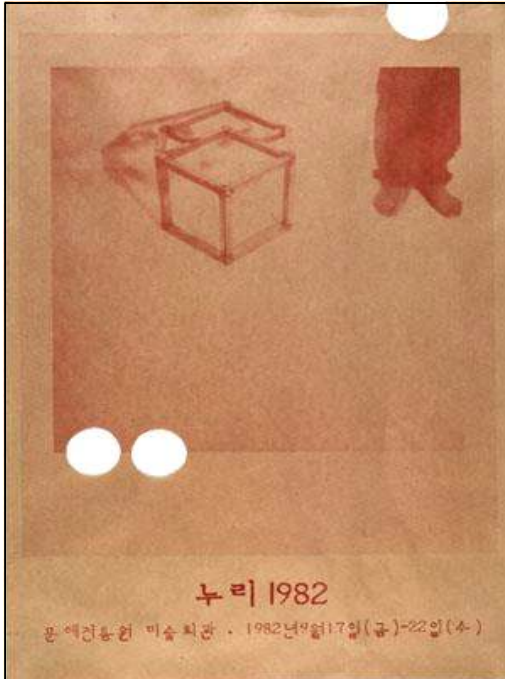
●■▲ 오픈 보인

1999.05.30 '네모꼴 변주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사람이 만든 가장 바탕이 되는 꼴이라 할 수 있는 네모꼴을 여러 일개체를 이루어 만든 것은 민절들이다.

1982.09.17 '부리 1982',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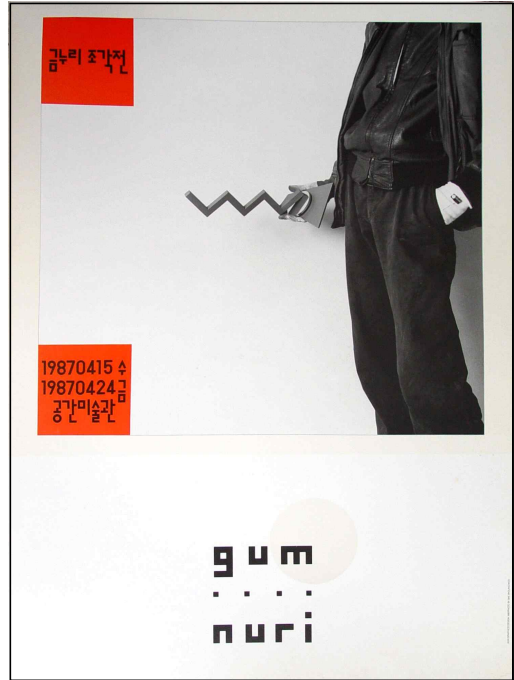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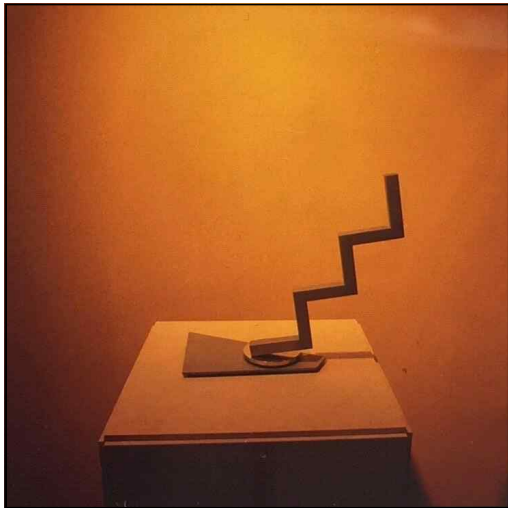
잔치알링은 값싼 부리 종이를 쓰고, 좋은 공병우가 만든 틀들을 뒤따라 싣는다.



실기담자와 보습잉 경치링 따라나는 경자를 함께 싣어 만든 민절들
 빛바랜 긴장실, 잔치 알링 마린경은 안상수와 함께 하였다

1989.08.15 '부리 1989', 서울, 공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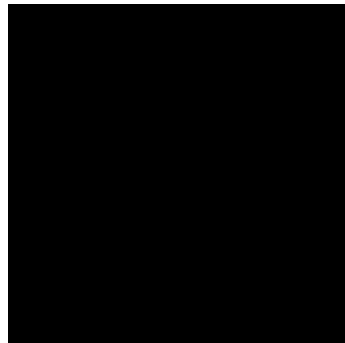


놓여 있는 건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여러 일개로 이에 따라 스스로 달라지는 길을 이루는 먼지들을 함께 보았다. 빛바치는 배병우, 작치알링 마틴그린은 안상수

"김누리는 단단하고 차가운 재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강동적인 인간적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홍가이,

"김누리는 형태를 만들 때 자연의 외양을 활용하고 싶지 않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는 일면 '자연적 창조물'이 갖는 특성과 '인간적 창조물'이 갖는 개성 사이에서 어떠한 그 자신의 뚜렷한 창작적 관심과 인성을 선택하겠다는 의식의 한 발로라고 볼 수 있겠으며, 하나의 결정적 발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윤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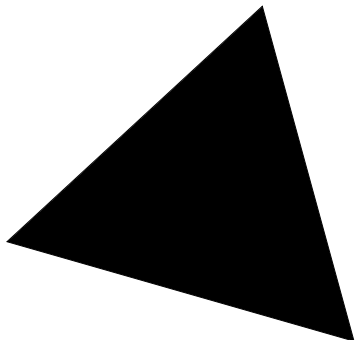


1991.10.03. '4리 1991', 서울, 갤러리미건



밀고 당기는 보이지 않는 쇠길임과 움직임을 시 송겨진
일개를 느끼게 하는 민질들
민질들이 놓이는 반침들을 통괄처럼 휘어두어 새로운 느낌을
보이기도 했다
빛박이는 주명덕, 배범우, 이주현

"공부리의 작업은 아주 민감한 감각을 바탕으로 한 지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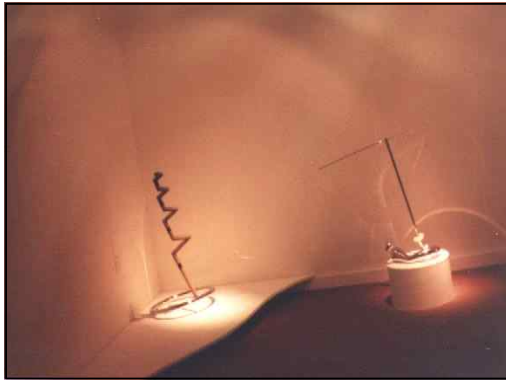


미적인 추구뿐 아니다.
 우리의 시각을 호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비특이한 매력적용을
 차감고 이직진이다." 유재길,
 고누리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비단 조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화, 건축,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매번의 개인전 때마다 그의 카타르시스 자신의
 전시를 소개하는 안내서나 등 러리 장신통영서의 심것을
 넣어서 하나의 독립된 장신통영서의 예술통과 전배었다."
 장영모,



1992.08.11 '부리 1992', 뽕토, 태오도현대미술관

'부리 1991' 때 민중들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사랑등을 만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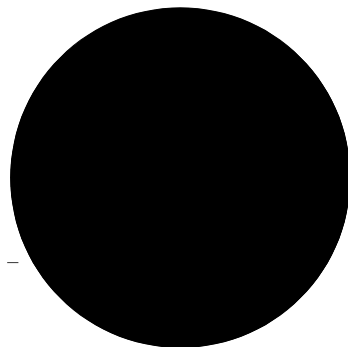


"like western sculptors such as david smith and picasso, nuri gum has chosen to work with unusual materials of their own, but his work also illustrate a strong sense of design create sculpture that is lasting, it is almost like permanent suspended animation/" RHELI CHRISTEN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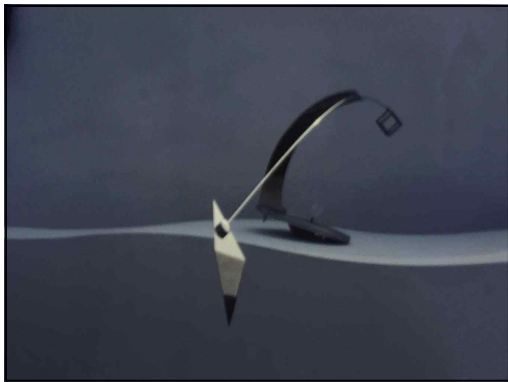


"nuri gum's art is far removed from any preconceived, stereotyped notions of Korean art, these sculptures from the east are symbols that fit a universal sense of contemporary aesthetics and that remind us of the inevitability and increasing dependence of humans on high technology." luciana bezi

"it is not shocking or earth shaking, rather it is well-conceived, economic, fun and consistent. this is unto itself if refreshing, originating in tradition and translated well for the present, nuri gum's art will, no doubt, develop in to the future with the artist, at a steady, well thought pace." paul si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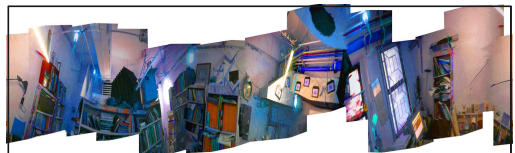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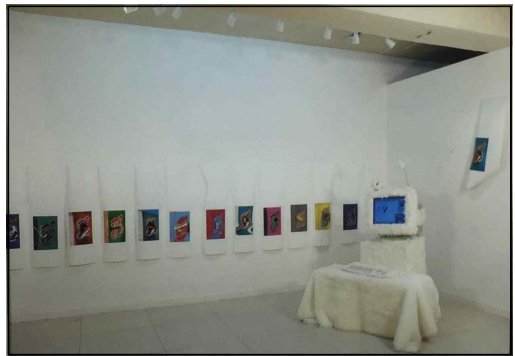
1999.10.09 경복궁, 안상수 이중개인전, 서울, 온갤러리



민중과 권력을 싸거나 벌인 궤멸도 함께 보여주기도 한 민중들이다.
 민중을 이룬 강도 보여지게 되는 셈이다.
 안상수와 이중개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느낌을 보인 민중작처이다.

우리 밖에서는 김대수, 알미봉 닐에 도움새김한 잔치알링 마린그림은 안상수와 함께하였다.

1998.09.09 경복궁 0.021년전, 서울, 사이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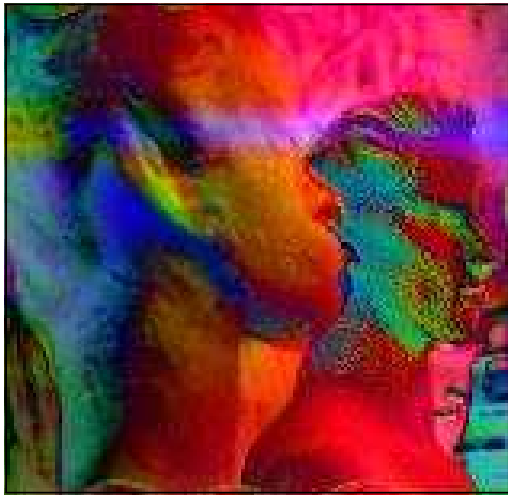


고추리 먹집 주리기 2019.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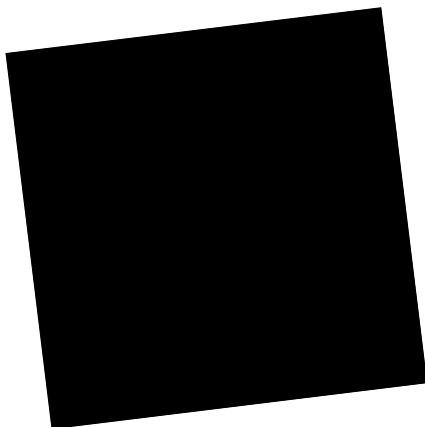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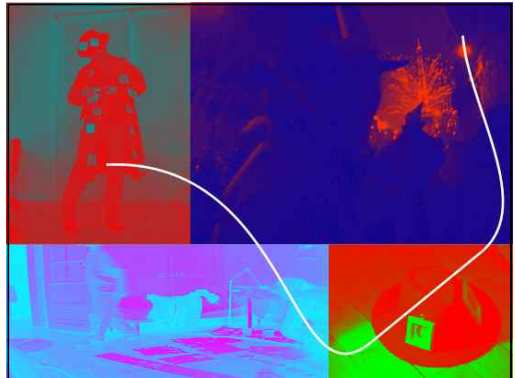
생츠크로 그린 100 가지 우리나라에 경기에 이리저리 모든
 건물을 붙인 만질들이다
 경관과 나의 일터에 생츠크로와 비박이를 이어두어 말들은 물론
 빈개똥짓 경관과 건물 시공 나눌 수 있게 하였다
 비박이는 유안진과 김영태

1999.12.31 '1999.바리.2000' 바리,
 상제리제 대로

1999.03.09 생츠크로 본질과 관조의 거리 부산,
 시립미술관



모래로 만든 일개와 생츠크로 그린 경기에 모래를 함께 스
 만질들과 경관이다.
 비박이는 유안진



간과 옷에 작은 것들을 넣은 내 민첩을 달고 바리에서
 벌린 번개 민첩이다.
 빛바치는 경릉비, 외려 불인 움직이는 유안진

2008.09.11. '장소-공간', 에이리, 소담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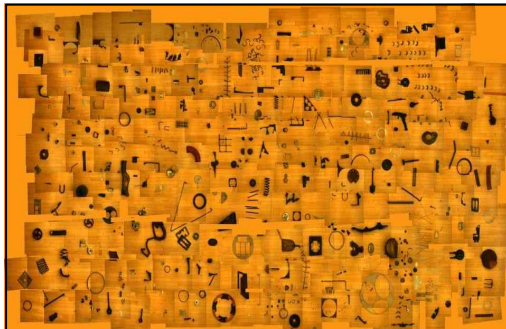


장자리나 지렁이처럼 벌레들의 글꼴들을 생각하며 만든
 민첩들이다
 그 바탕 생각은 글꼴 글꼴은 빛바리게보다 낫다.,
 눈감고 보아도 들린다.
 빛바치는 김성태, 펼친 경은 임영모

2008.09.23. '글꼴. + .안상수', 디자인 포트,
 서울, 예술의전당

깊은 털로 만든 일개들로 만든 민첩과
 새끼들 수레들로 땅을 벌려 그린 것들이다.
 빛바치는 김튜

2009.09.13 '글꼴. + 안상수', 서울, 현대백화점



공부라면서 우리 2019.11.15

책 보아서 보거리를 얻어 만든 걸상 두 개
 옆쪽 걸상은 예술의 전당 디자인박물관에서 지내고 있다.
 뽀뽀하는 김세준, 알링꽃 지는 안상수가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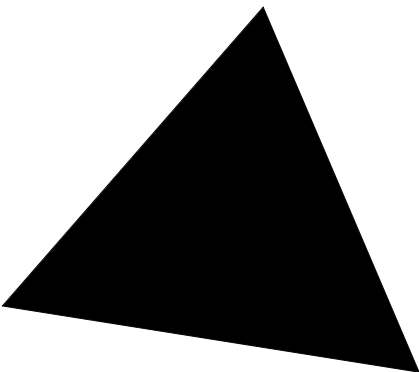
2015.09.08 '타이틀매치, 공부라면서' 홍정표, 서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타이틀로 그려 평등과
 안 미술등을 후원하며, 배우미에게 한 뭉치에 예술 안자
 받게 와 그에 맞는 글들을 따 붙이고 반개 미술도 하였다.
 아아 당안에 들어가 움직이길 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앞서
 앞서 위 뽀뽀하는 김세준, 아래 뽀뽀하는 김상수,
 자처알링 마련했음 기뻐함이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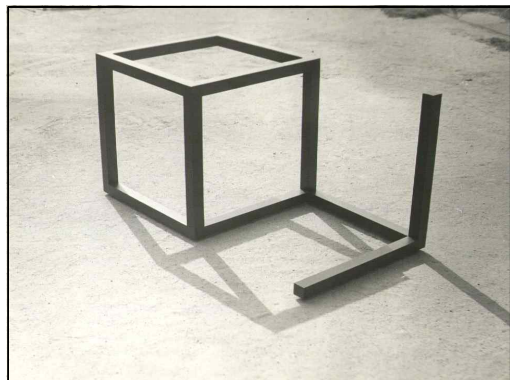
●■▲ 페로 보잉

1995.09.01 야외조각전, 서울, 홍익대학교 야외전시장



보이지 않는 바람이 만든 움직인질이다.
아래 위로 부는 바람에 따라 몇 초마다 오내내이다.

1996.02.19 제1회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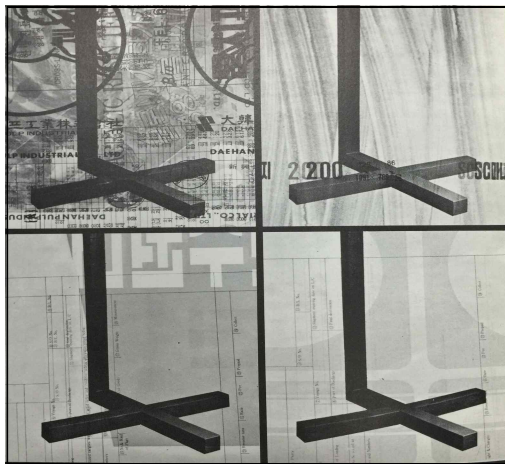
네모와 실기 사이 사랑이 만든 꼴들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는 네모실기를 엮어 엮어 다른 곳 다른 때를 이어 펼쳐는
느낌을 주셨을 하였다.

- 1976.05.20 한국미술청년작가전, 광주, 진일미술관
- 1976.08.02 야외작품 발표, 홍남, 안면도 꽃재백년
- ...
- ...
- ...

홍 민철

- 1977.04.02 한국미술청년작가회관 개관 기념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7.04.18 조각 2인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7.06.05 시험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7.08.06 한국미술청년작가전, 필라델피아,
발처인 스티튜트미술관
- 1977.12.19 24인의 실험작가전, 서울, 청년작가전
- 1978.04.00 제1회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춘천,
달림문화원
- 1978.05.00 제2회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홍주,
달림문화원
- 1978.06.00 제4회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대전,
대전화랑
- 1978.07.00 실험작가2인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98.07.00 청년작가개성대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8.09.14 서울예고 창립25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 1978.12.02 제10회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1978.12.00 청년미술관 건립기념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79.02.10 한국미술청년작가대전, 파리,
국제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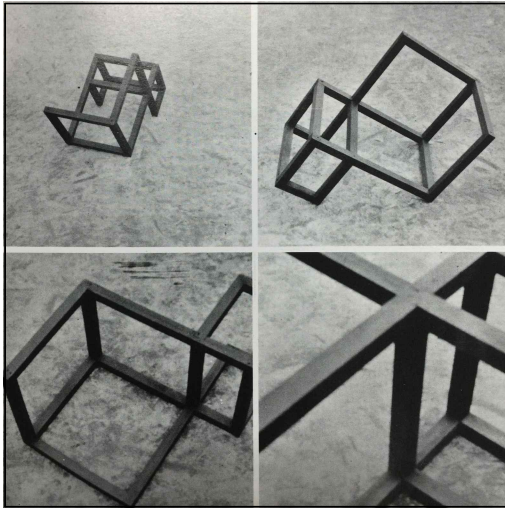


공부리 먹집 주리기 2019.11.15

떠있는 네모를 빈 곳에 띄운다면 경칭처럼 보이기도
 실기덩이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늘 위 경칭일 ...

- 1979.03.21 살롱 위랑방당, 파리, 루생부르 미술관
- 1979.06.00 74-77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9.08.01 한국 미술 청년작가회전, 제주, 칼호텔

1979.08.21 시험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1.03.26 한국현대작가전, 파리, 한국문화원



꺾기를 위에 만든 네모 실기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민질이다.

1981.12.18 제13회 한국 미술 청년작가회전, 서울, 미술회관



꺾기를 두드려 위에 만든 네모 실기대로 가운데 걸은 움직일 수 있는 민질이다.

- 1982.05.00 한국 미술 청년작가회전, 춘천, 시립문화원
- 1982.05.01 시험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 1982.06.11 홍익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2.08.02 사변연승전, 서울, 공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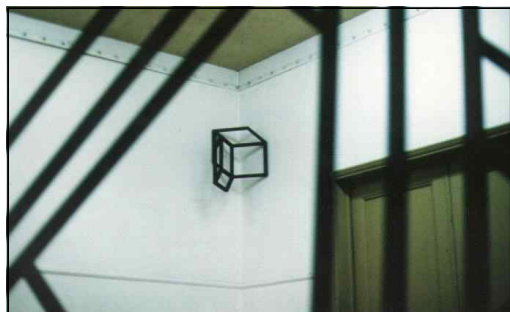


네모와 실기 사이 움직인 면질이다.

1982.12.24 제14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미술회관

1983.01.14 제3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2.12 청년작가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83.03.02 청년미술관 개관기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3.09 30대작가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7.00 환경조각을 위한 드로잉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5.18 시험조각전, 서울, 청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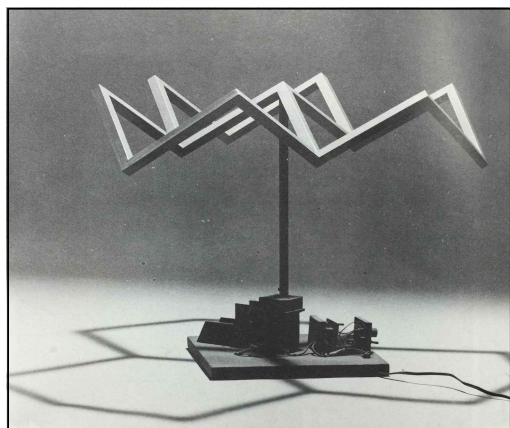
1983.05.02 서울 예고 창립 30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1983.07.20 제1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3.08.31 현대조각 11인전, 서울, 문 갤러리

1984.01.11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신년 쇼팽전, 서울, 청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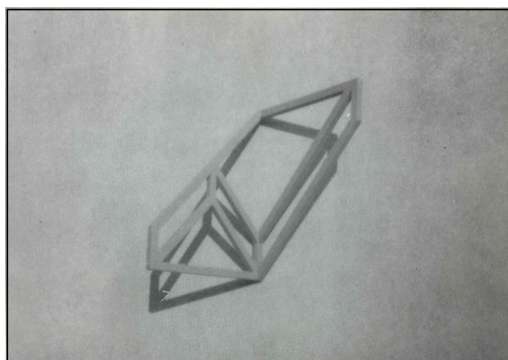
1984.02.27 한국현대조각 단면전, 도쿄, 한국문화원



돌아가는 움직인질로 세로의 무게가 서로 갈고 가운데 낚지에 걸쳐놓아도 쓸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살짝 흔들리며 돈다.

1984.03.01 환경조각을 위한 에스키스전, 서울, 청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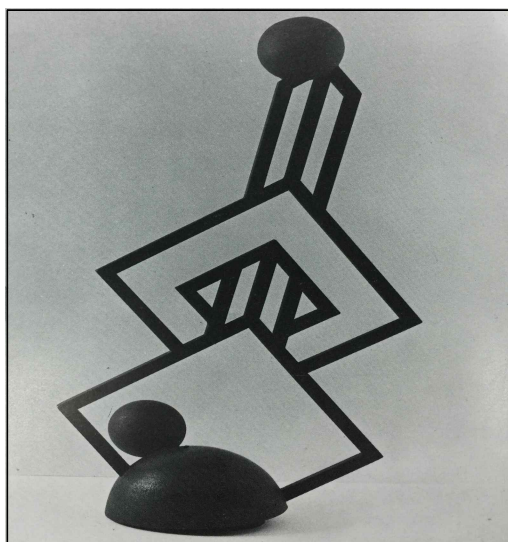
1984.04.27. 제14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84.06.00 환경조각을 위한 에스키스전, 제주, 동인미술관

1984.08.02 제23회 올림픽 기념 홍익조각회전, 로스앤젤레스한국문화원

1984.08.03 제22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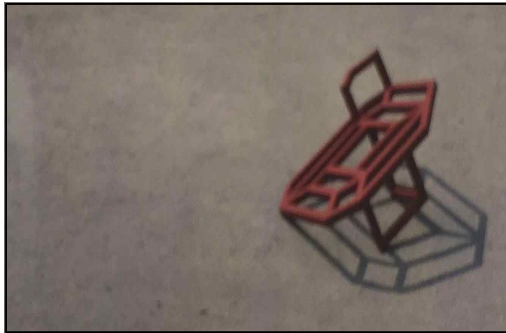
공부리 미술 주간기 2019.11.15

1984.12.12 '84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동계실험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5.01.30 '85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신년실험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5.04.03.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서울, 청년미술관

1985.05.20 제16회 홍익조각대전, 서울, 홍익대학과학박물관



경쟁자가 더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한 민중이다.

1985.06.17 서울갤러리 개관기념 조각초대전, 서울, 서울신문갤러리

1985.10.19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강릉, 시립문화원

1985.10.22 한국조각가협회 창립전, 서울, 서울신문갤러리



1985.10.00 중앙청역 미술전시장 개관기념전, 서울, 중앙청역전시장

1985.11.16 서울, 도교 조각들의 11월전, 서울, 안강갤러리

1985.12.18. 제24회 한국청년작가회, 서울

1986.03.12 '86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명예회원전, 서울, 청년미술관

1986.04.07 서울 현대미술 6인전, 도교, 갤러리 서 네모실기와 경쟁자 ... 움직인질

1986.04.18 홍익조각대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6.06.21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대전전, 대전, 대전문화원

1986.07.04 와늘의 현대조각가 10인전, 서울, 바탕골미술관

1986.08.15. 제2회 한국조각대전, 서울,

1986.09.11 애용전, 서울, 백상기념관

1986.09.16 제26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서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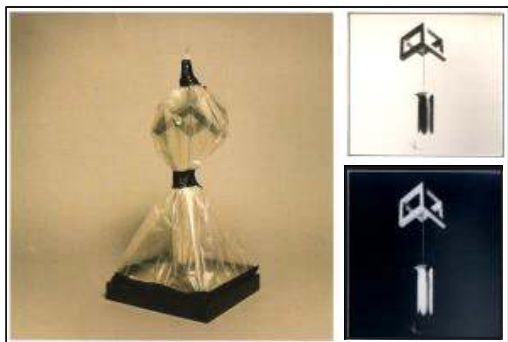
1987.04.25 신천지미술관 개관 기념전, 제주, 신천지미술관

1987.05.23 퉁탈미술관 4주년기념 한국조각의 와늘전, 장흥, 퉁탈미술관



돌아 오는 회오리가 아니라 내가 깎아 올리는 회오리 민중이다.

1987.04.13 건축가 고길순 과 1주기 추모 기원전,
서울, 공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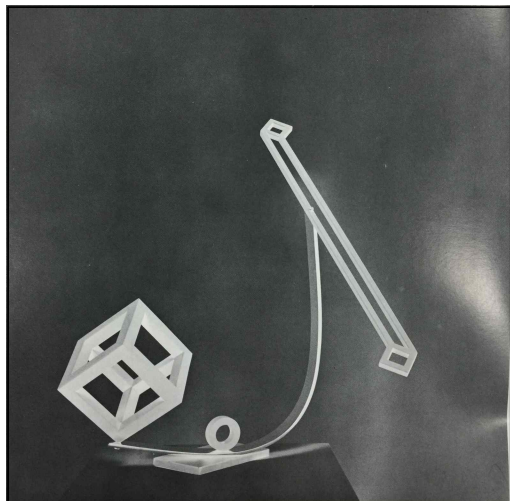


아서 파인 겐도 나의 민질인 셈이다.
나는 산 사랑만이 꾸러산 이 민질을 품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아 꾸러기를 알려줄 수도 있네...

1987.08.14 제10회 시업조각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관

1987.08.28 30/40; 기아한이 읽는 추상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8.02.14 한국현대미술전, 맨시코, 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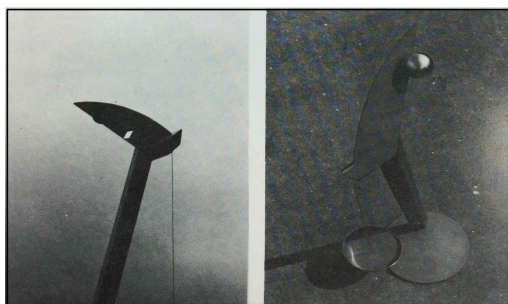
1988.09.10 88올림픽 기념 현대 미술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1988.12.00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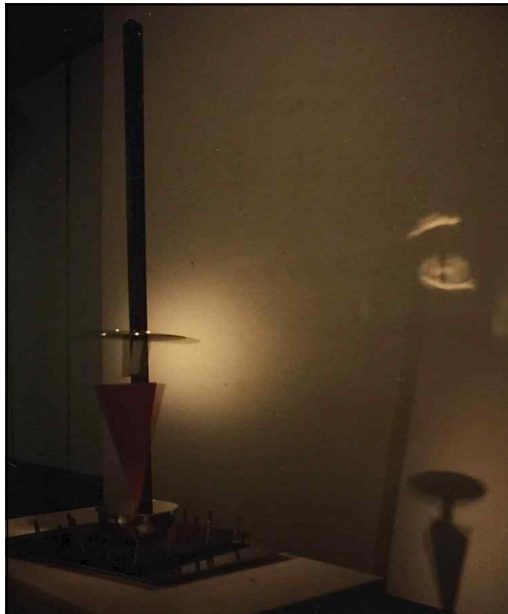
1988.12.07. 제28회 한국청년작가회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89.02.14 한국현대미술전, 맨시코, 국립현대미술관

1989.04.09 한국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 서울,
동숭아트센터



1989.07.02 빛과 움직임전, 서울, 무연센터
현대미술관



당강 외를 스 움직인질 아래 세뿔이 아주 작은 바람의
일렁도 흔들 거린다.

공부리 미술 추리기 2019.11.15

1989.03.30 만리장성과 베니스를 위한 현대미술전, 파리, 드루-몽테스

1989.05.06 만리장성과 베니스를 위한 현대미술전, 보경, 동국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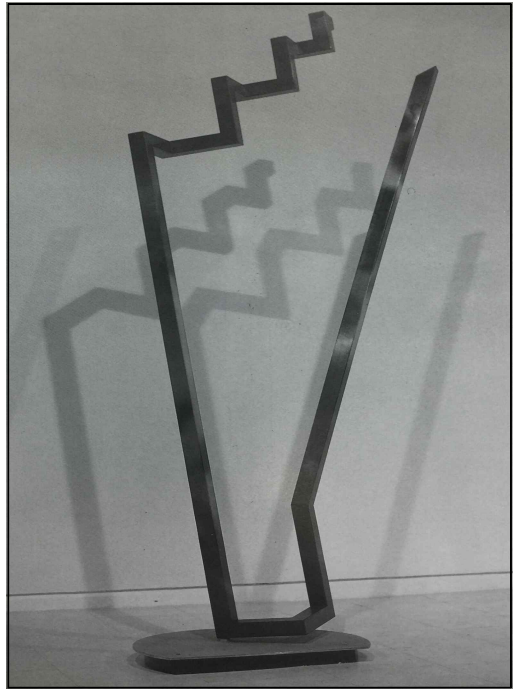


당강외로 매어 단 웅진 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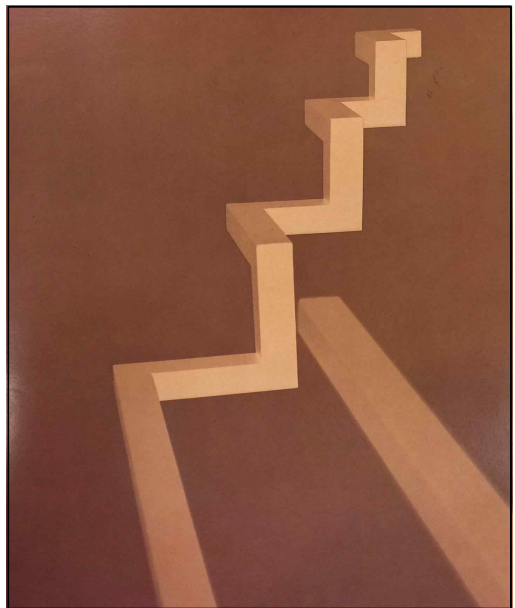
1990.03.02 제1회 웅진조각대전, 서울, 미술회관



1990.03.29 조각경관장엄대전,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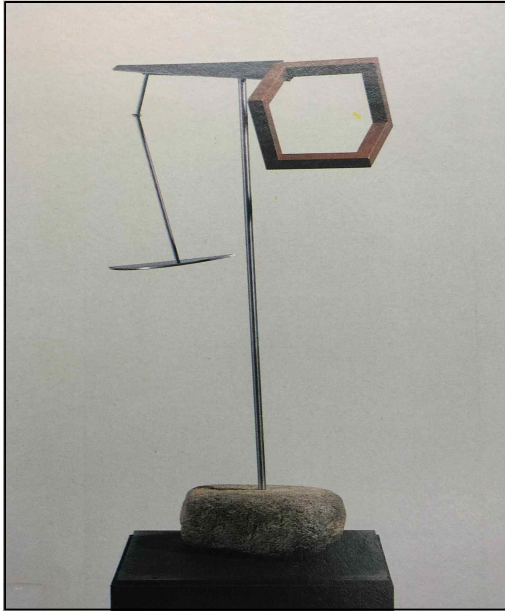


1990.05.08 청송야외조각전, 서울, 연세대학교



1990.06.06. 시영조각회전, 서울, 백송화랑

1990.05.10 한국 조각가협회전, 서울, 미술회관



1990.04.27 '90 현대 조각전, 서울, 조영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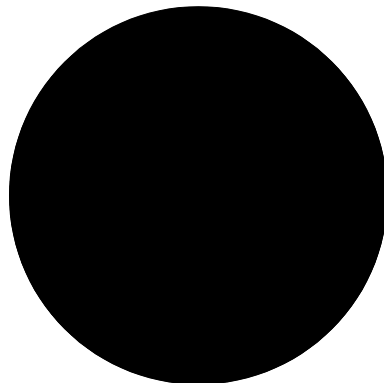


1990.09.24 시영조각회전, 서울,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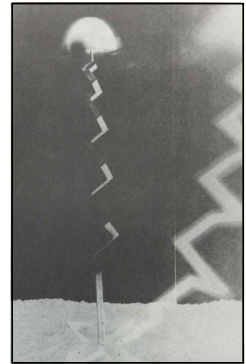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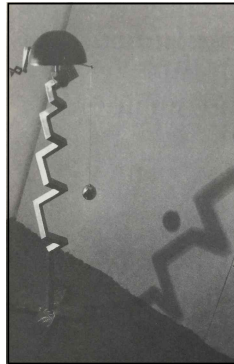
1990.08.02 한국 현대미술제, 과천, 현대미술관
1990.09.08 한국화와 조각의 10인전, 서울, 영동화랑

1990.09.17 전자카페 통신미술, 서울 + 산타모니카,
안그래프스 + 일렉트릭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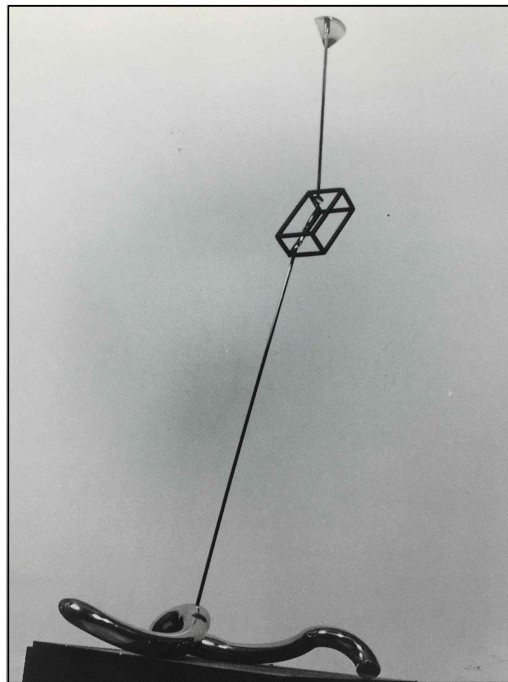
1991.12.06 한국 현대 미술전, 서울, 갤러리 미건



1991.12.06 한국현대미술전, 앵상프랑스, 바자렐리제단미술관



1992.06.08 한국 현대미술제, 과천, 현대미술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는 친 번개미술
 서울에서는 고낙범, 김부리, 문주, 백광연, 안상수, 이규철,
 이봉, 최정화 산타모니카에서는 킴 갈러웨이, 김용신, 아워드
 킴, 박해경, 박혜수, 세리 라비노비치, 루디아노 크레프가
 함께했다.

- 1990.12.15 이미지와 추상의 오늘전, 서울, 데코미술관
- 1991.03.29 광장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 1991.04.10 의식과 표현의 환상전, 서울, 롯데미술관
- 1991.06.19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 서울, 예술의전당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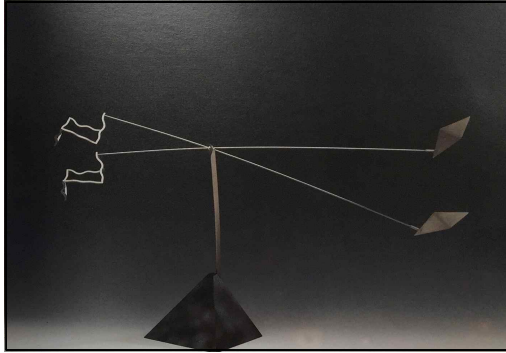
마음의 움직임이 커 여러 가지 길들을 모아 놓음

1991.12.22 제16회 청년작가회전, 서울,

- 1992.07.15 '92 광장전, 예매화랑, 서울
- 1992.07.23 '92 현대조형전, 제주, 신천지미술관
- 1992.09.04 한국조각가협회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92.09.23 에펠 드 시움전, 서울, 관훈미술관,

1992.10.09 한글 주제 전, 서울, 시립화랑



1992.11.21 메모 앤 페트 콜렉션 시움전, 서울, 공평아트센터,

1993.08.11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 서울, 시립미술관

1994.02.02 책음 소재로한 미술전, 바르샤바, 베르린

...

하루 몇 배 만에 만든 책음 소의말뚝 맞아 있지 못하게 만든 민질

1994.12.01 3030전, 서울, 김내현화랑

1995.02.17. '95도광장전, 서울, 미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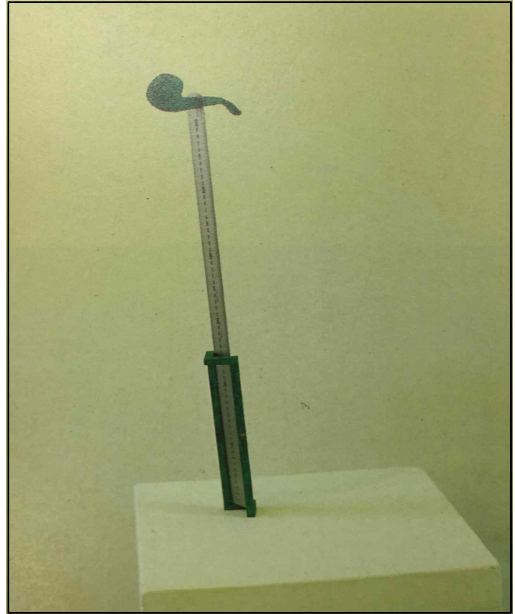


1995.03.22 한국 조각의 오늘전, 서울, 종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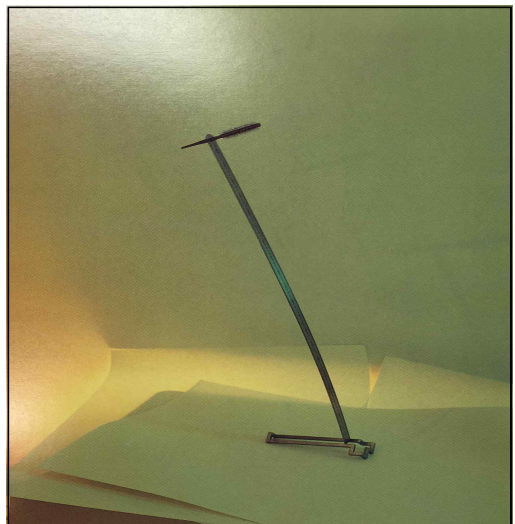
1995.10.10 비너스 싸리비전 전, 서울, 정화랑

1995.12.11 작은 조각전, 서울, 유경갤러리

1995.03.01. 용의조각회전. 서울, 미술회관



1995.08.27 나코아. 서울. 일채조형의 고향전, 나코아, 시립갤러리



공부라면서 미술 전시하기 1989-1995

머리핀을 쇠자 끝에 달아 흔들거리게 하였다.

1994.10.07 도시와 영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타고 다니던 수레를 도우미가 몰아 놓도록 하였다.
가장 쉽게 만들어 보인 민중

1994.10.17 문자의 세계전, 예술의 전당 미술관, 서울



엔 글씨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달아 붙임

1996.11.19 제4회 심보미술전, 심보구청 강당, 서울
1996.12.04 한국 현대미술 현재와 미래, 홍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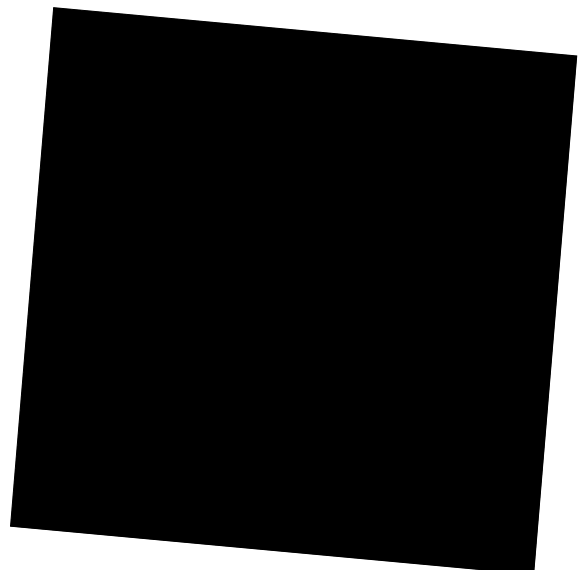
현대미술관, 서울

1996.12.11 조깅중 감장전, 인사갤러리, 서울

1997.07.07 안상수, 이봉근, 최인진
'사사문동' 서울, 삼류저음, 빛바랜 이재음



노래 민중 ... 노래 민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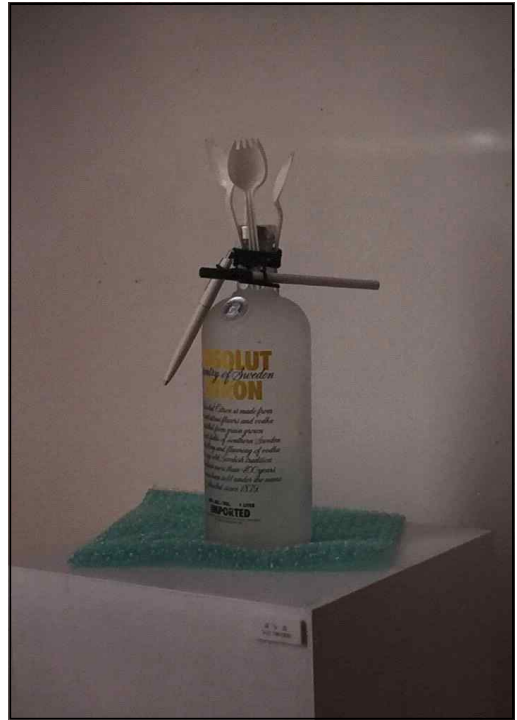


1999.08.01 서울, 나고야 국제조형의 대전, 종로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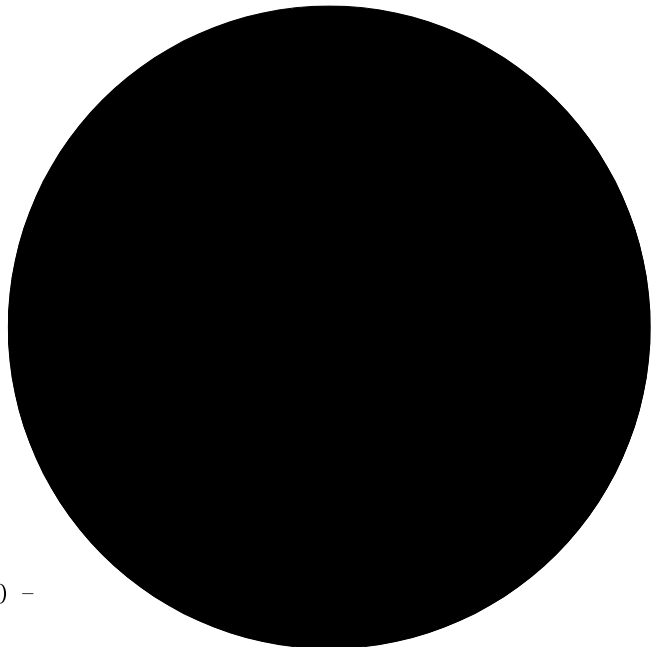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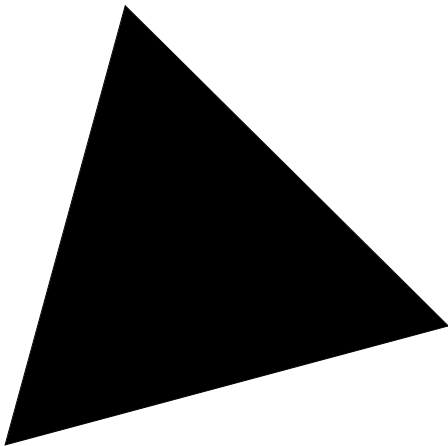
가장 깊이 있는 민중
원본에 모래가루를 붙이고는 뒤집어 놓고 그 깊숙한 곳에는 그
때 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밀리미터들을 넣어둬 나 그제
말 아들 이들을 앞에 두어 깎을 지나 곁이 보이듯
금부리길로 만든 우레들 얼굴을 지나 모든 움직임들이
보이도록 애놓았다.

1999.08.21 조각전 광장동전, 원서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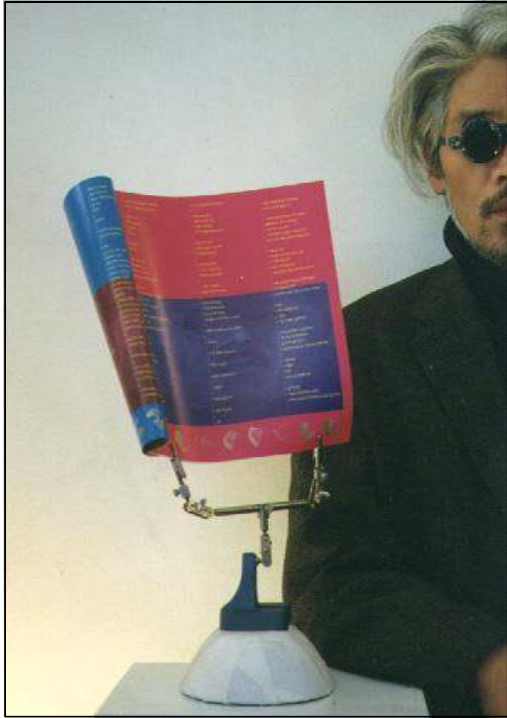


산파시스템에서 서울 가는 날들 안에서 인은 건들뿐만
만든 민중

1999.10.01 한일조각 비인 대전, 모암미술관,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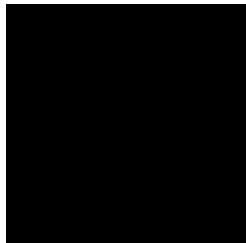
1999.11.12 '99 광장전, 종로갤러리, 서울



나의 평글과 스스평에 내기를 세긴 책을 집게반침에
둔 민질이다.
한곳 건축가협회에서 마련한 가평침에 보여 일뿔 하였으며
나의 어떤 스승은 고개를 돌리며 일드게 다 일시켰다고 한다.
가장 오래 본 민질인 셈이다.
빛박이는 이대원

1999.03.06 불환실상에 대한 탐구전, 홍익조각회,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9.04.15 2000인 조각가 소형 작품전, 서울, 신화랑



1998.06.13 공연 쇼의 조각전, 서울,
국립중앙극장 문화의 뜰



스스로 자라는 풀과 종이채치침 오래가지 않는 스승으로 밖에

놓은 민중이다.
민중의 생각을 튼튼하고 오래가는 길이 아니어도 스스로 사라져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빛박이는 이태원

1998.09.17 보았시/보았시 0.1세기 새 선언전, 서울, 사이갤러리

1998.11.15 실체와 퍼포먼스, 무는통 야외공연장, 부산

...

...

...

출판 홍신자와 그의 손님들께 보인 칠 던지기 칠 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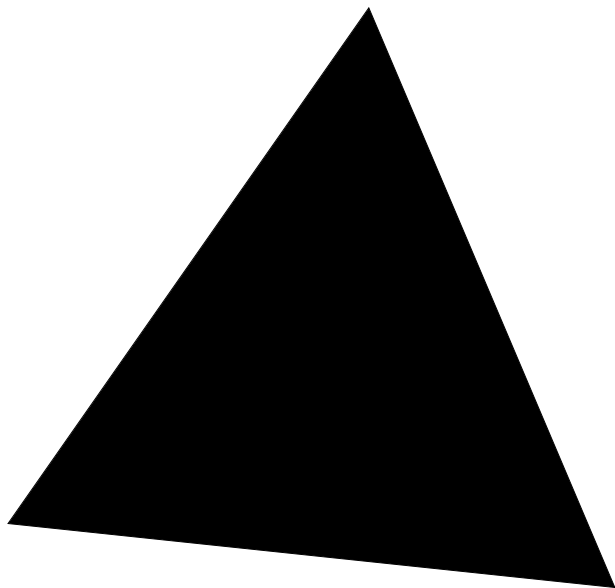
1999.03.03 제30회 홍익조각대전,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600년기념관

1999.03.09. 공간의 본질과 관조의 거리, 부산, 부산시립미술관

1999.09.08 동아시아 문자예술의 현재전, 서울, 예술의 전당 시애틀관



생물로 쓴 글, 모래로 쓴 글과 장자리를 걸어놓
위 켜진 진먼마라비 공연태의 춤에 그누려 글꼴을 새긴다



2000.01.15 머리카락 0.1사사전,



안상수가 델아비브와 파사데너로 뽀뽀 나들이 가는 날 아침 그의 머리카락을 깎아 만든 민중이다.
살아 움직이며 자라는 민중이며 살아 움직이는 민중잔치가 된다. 빛박이는 이재용

2000.04.15 관객실체, 제6회 부산국제예술제, 부산, 무는통 야외극장



손님들을 생각으로 쓴 민중인 생이다.
살아 움직이는 민중이다.
살아 움직이는 마당 놀이이다.
간인 굳이 환 춤이다. 빛박이는 김다름

홍수리 미술 추리기 2019-2020

2000.12.19. 텔레마틴 이벤트 서울, 나비 아트센터
 2001.02.01 제1회 조각공공 광장 초대전, W1116
 DALLIADA
 2001.07.12 한길전, 뽕, 저지저갤러리, 오사카,
 디디디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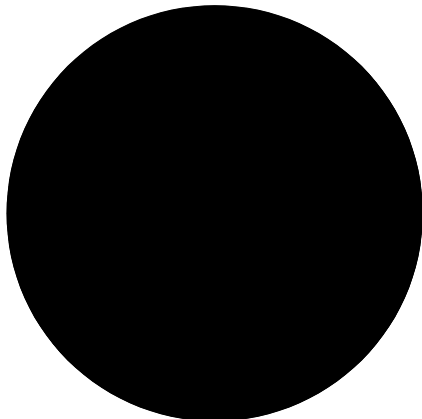
...
 ...
 ...

나 스스로 생각한 하늘, 땅, 사랑을 드러낸 길과 일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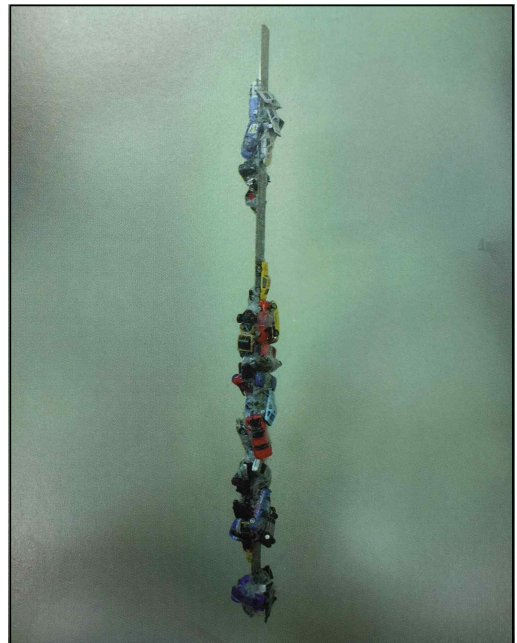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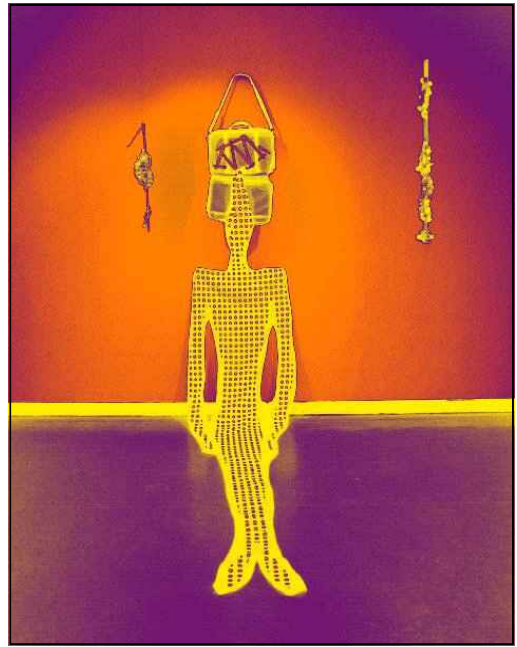
2001.08.14 제3회 용인 조각회전, 서울, 서림미술관



2001.10.02 한길전 666 뽕 긴자 크라피 갤러리
 2001.11.19 2001 조각공공 광장 한일 교류 사회봉사전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2002.02.14 영운의 바람, 카툰만두
 네팔왕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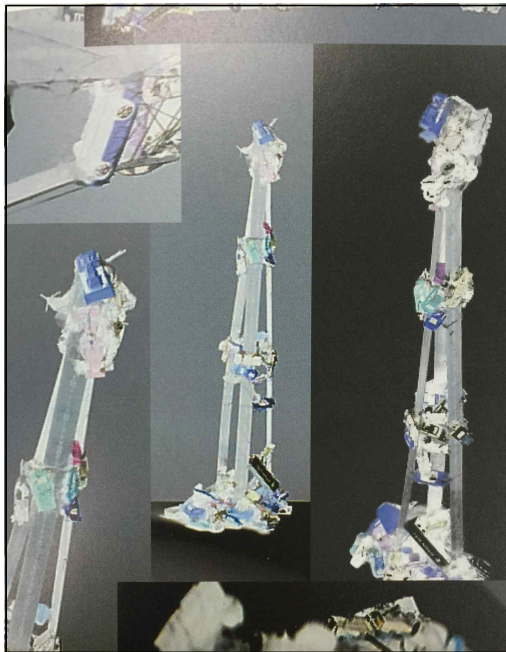


공 부 리

위어진 봉긋 자들과 버려진 알링 돛을 잘라 나들이 가방에
담아 곁에 펼쳐둔다
빛바인진 진영수 선통환 내가 바꾼 것이다.

2002.07.03 제3회 용인조각회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2002.03.25 Korean mass/japanese
figure 모양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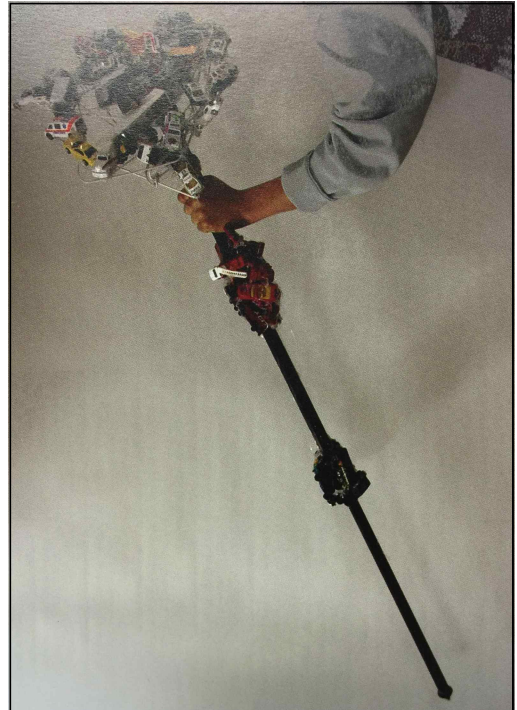
2002.10.01 광장전 가수개이시도서관 문화예술 센터



장난감 싸움 수레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풀로 얻었다.
빛바인진 최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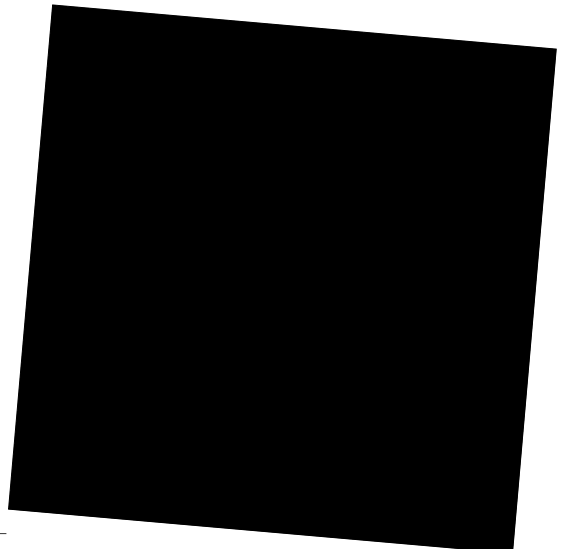
2003.03.15 조각경관상 선통환 HATI Gallery

2003.04.23 2003조각경관 상장정기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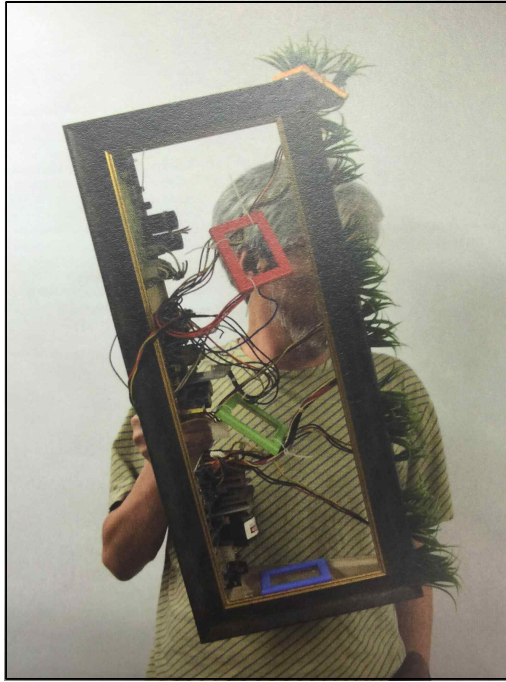
2003.05.17 NATURE AND SCULPTURE
모양미술관

2003.05.21 서울예술고등학교 50주년 기념전 서울,
세종문화회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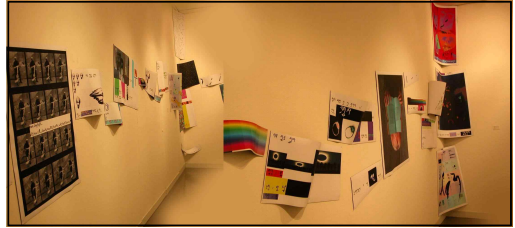
고수리 미술 추리기 2009.11.15

2003.09.09 제 34회 용인조각회전 관훈미술관



내가 만든 민중의 의와 안상화와 함께 재현 보시 보시 모델 보인 잔치이다.

2004.04.24 미술 밖 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그해 내가 쓴 평등을 내가 만든 글꼴들로 만든 그림과 민중잔치이다.
빛바이는 이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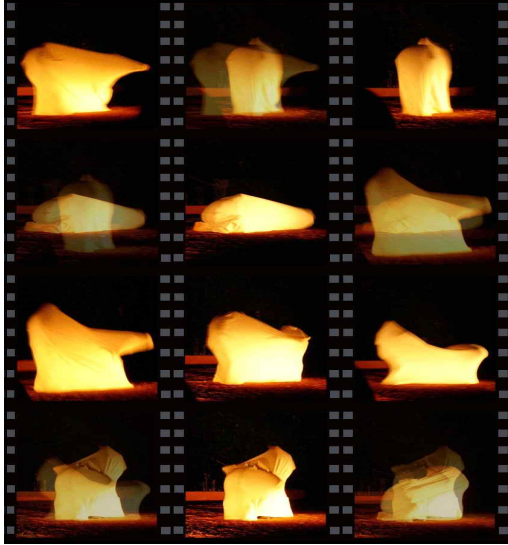
2004.05.12 2004 조각경품 광장 정기전 세종문화회관

2004 06 관객설치, 조선국제예술제, 조선, 운노동 아외극장

2003.10.08 한글 평민 전 서울 원아뜰 101호

2003.12.25 2003 서울 북아트 - 아트 북아트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내가 종이 위에 그려는 건이 아니라 네모 종이가 나를 그려다.
 나는 아얀 울퉁이다.
 나는 아얀 노래이다.
 살아 움직이는 경이다
 길없이 갠인 곳 몽진이다.
 빛박이는 송풍은

2004.07.14 제35회 홍익조각회전 관훈미술관 서울

2008.09.11 place/space 부리 43370911
 소담갤러리 에어리



검은 톱토 만든 먼질들과 잦은 물건엔 그려 경들
 빛박이는 금뿔

2004.10.24 자연-그 침묵의 소리 노래박물관 남이섬
 2004.11.16 제11회 심복미술전 심복구청
 2005.05.18 2005 조각경 광장 집기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2005.05.21 광복 60주년 기념 안국미술의 앞과
 미래 고양시 모양 미술관



수레 먼질과 내가 안 몽임을 드러내고 싶다.
 빛박이는 유안징

2005.07.13 36회 홍익조각회전 서울 관훈갤러리 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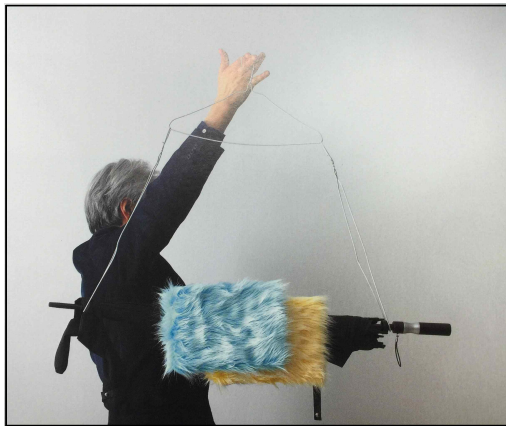
2005.12.01 이음 서울 인사아트센터



내가 퍼낸 책 슬기로운 눈과 시화나본 경은 책집집을 달리
 하여 내 방을 거쳐 나간다.
 많은 책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셈이다

2005.12.29 현대작가 40인전 서울, 갤러리 안,
 광화, 심은미술관

2006.07.16 2006 조각그룹 광장 집기전, 서울,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쾰스프스갤러리



2006.05.08 Hybrid 언어에 대한 단상, 서울,
 국민대조형갤러리

2006.06.01 R&S project 2006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007.04.18 2007 조각그룹 광장 집기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과 연수갤러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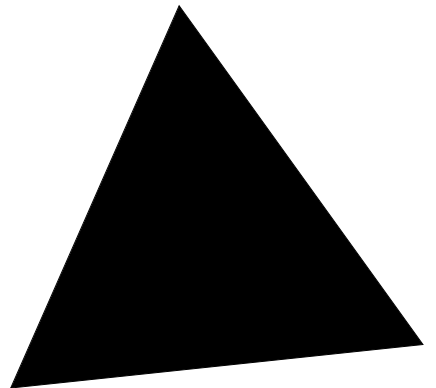
2007.05.09 국민대학교-노바스아시아미술대학 교환프로그램
 10주년 기념 공소공예전

2007.05.23 예동진 갤러리(서울) 컨벤션센터

2007.06.11 2007 홍익조각의 종단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서울), 엘렉팅머피갤러리(양평)

2007.09.13 공부 + 안살수 = 구 서울 현대박물관

2007.10.20 제 1회 심본미술전 서울, 심본전시장



2008.05.01 2008 조각경 감상 정기전
 문관갤러리 서울, 인천학생과학문화회관



2008.05.19. 대한민국조각100인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특별전시장



불탄 송채문을 새로 고쳐는 돈을 모으려 만든 민중이다.
 많은 물을 쏟아 놓았다.
 빛바랜 한상덕

2008.06.11 디지털 미디어와 현대조각의 만남 전 삼양
 이 타워 1층 전시관

2008.07.04 inner and outer space 전 마닉스
 아트센터, 경기도 양평

2008.09.23 디자인 포럼: 공부리 + 안상수 서울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2008.11.05 창립 50주년 기념 서울예술공과대학교
 동문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2009.05.01 2009 용인조각회전 서울 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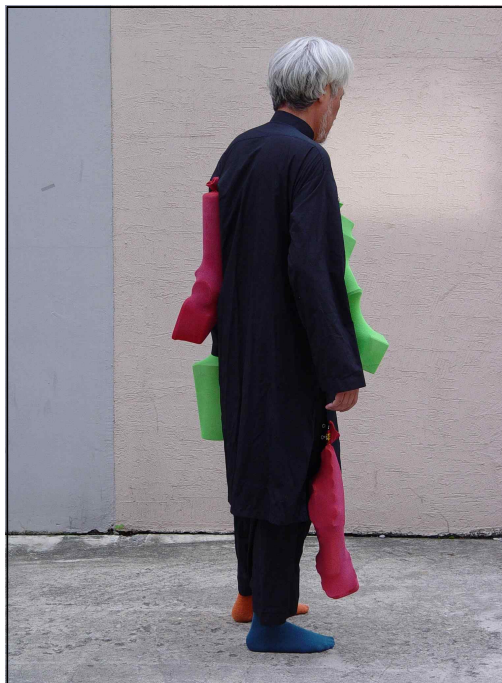
2009.05.06 2009 조각경 감상 정기전 세종문화회관

2009.06.25 2009 디지털 문화와 현대조각전 서울

5air gallery

2009.07.01 미피의 즐거움 미술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009.09.29 패션의 윤리학 "착하게 입자"
 경기도미술관



착하게 입기 생각에 따른 목매마련인 삶이다.
 가운 아시아 사람들이 정할 때 있는 목에 이걸 지면 주어
 당아 만든 나의 민중들을 닮았다.

2009.10.01 2009 실파콘 대학교 미술디자인 갤러리
 전시회 실파콘 대학교 미술디자인 갤러리, 방포



버리게 된 낱작한 불쭉전자를 내가 신던 버스에 당아 만든 손가방이다.
 빤빤이느 강드레, 뒤 소아무는 배방우의 빤빤이

2009.10.01 2009 성남야외조각축제 분당 탄천 둔치

2009.10.12 홍익대학교 동문 및 전.현직 교수 작품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근관

2009.10.16 20세기 출판 보고 교수 저서 전시회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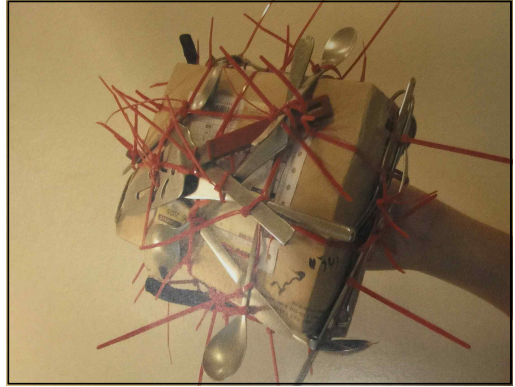
2009.11.25 한일 alliance française, victoria city, SYDNEY
 한일, 빅토리아, 세이셸공화국 팜스파화원

...
 ...
 ...

바른 그림 깎기

2009.12.01 상녕의 시각전 심복구미술관
 2010.02.11 한일-길없이 그려온 세이셸 서울, 김진애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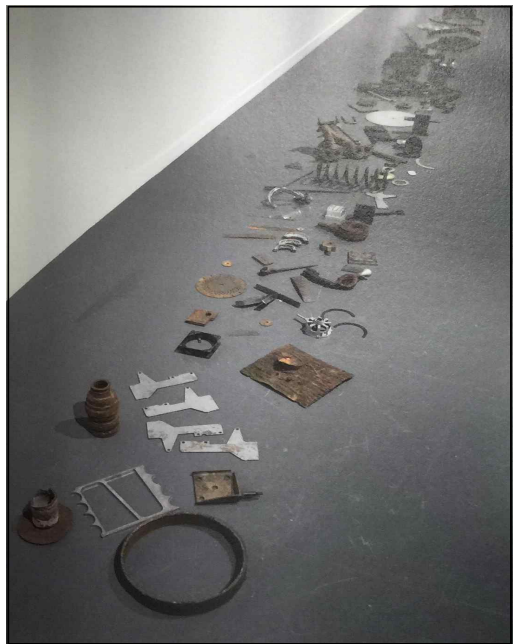
2010.03.21 2010 조각경 광장 정기전 서울, 라메르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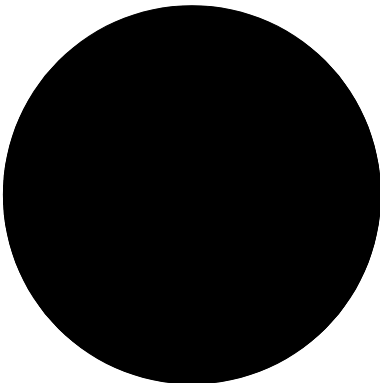
나의 만질등이 실린 책 자음과뫼음 받은 뒤 뜯지 않은 채로 수저나 칼 등등 먹음거리 연장등을 붙여 새로운 만질등을 만들었다. 빤빤이느 경롱비

2010.06.17 조각 2010 인천, 티엔날케 밀라노인천 트빌전시관

2010.12.01. 서울미술대전-한국현대조각, 서울, 서울미술관



버려진 길에서 주위 모든 것들을 길로 펼친 만질이다.
 빤빤이느 경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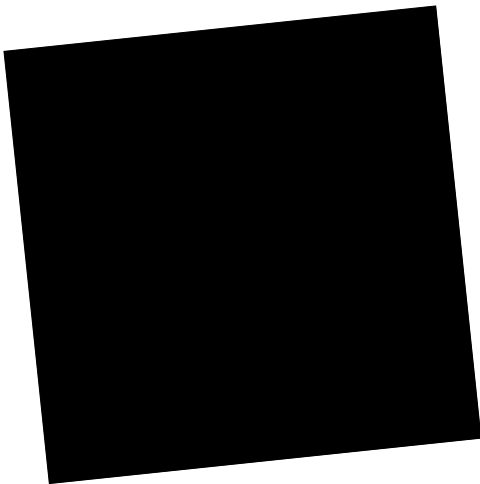
공 부 리

2010.12.20 이걸이 미디어 아트다 / 아트센터 나비
 2011.06.30 2011 조각총괄 광장 조각전 상암 이
 타워 5리 아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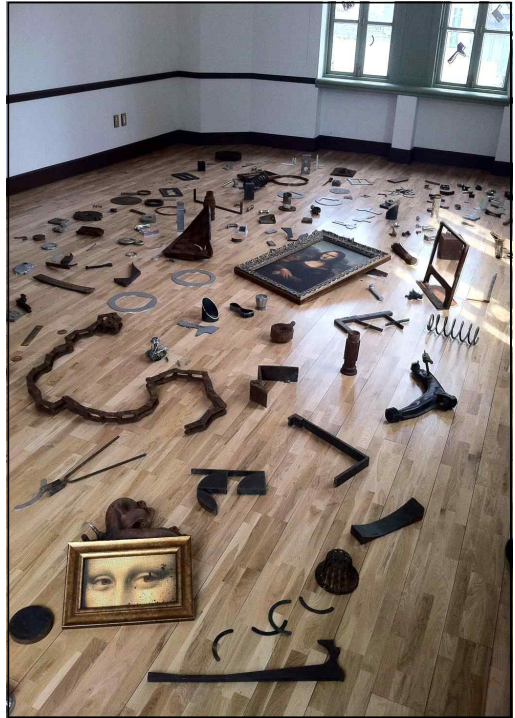
2010.09.09 원지에서 생긴 일, 안산, 경기도미술관



풍밭에 만든 하늘 땅 사랑
 빛바인는 강태운



2012.07.03 오래된미레 문화연서움284



버려진 외 조각들과 모나 리자 다 빈치의 갈라진 등과 조각을
 함께 풍이 보인다

2012.08.15 1001 전 인사갤러리

2012.08.22 조각1012전 서울, 호



공부리 먹집 주리기 20190115

흰 풍어로 만든 일개

2013.05.18 예술영원안방 서울,
예술의전당안방미술관

2013.05.23. 광장조각회 2013 정기전
서울시립경희공미술관, 5a1 갤러리, 광주시립미술관공남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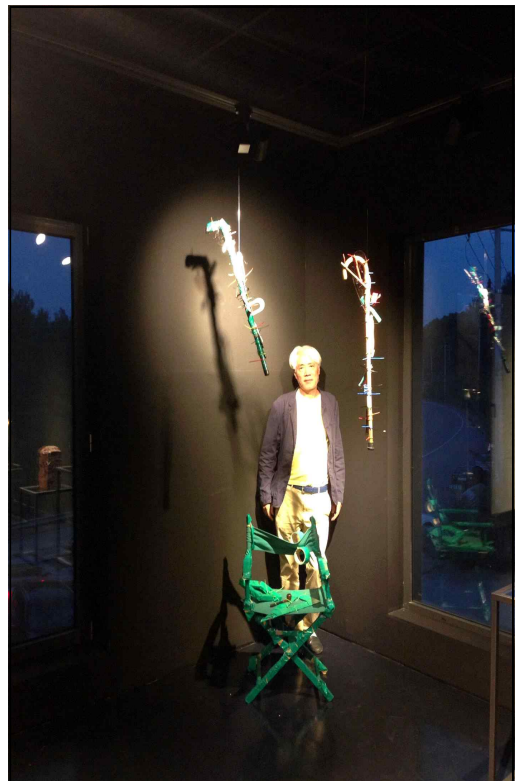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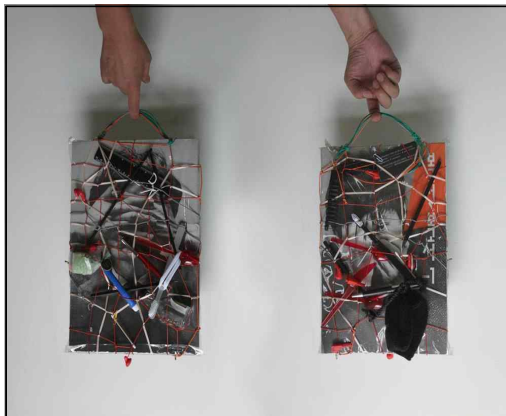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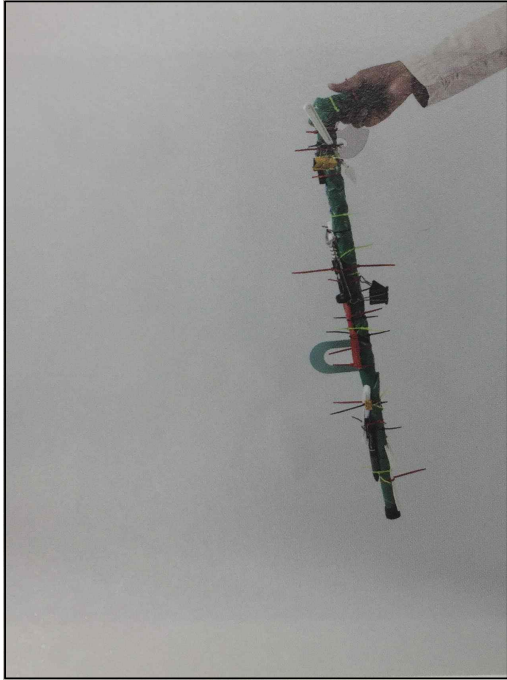
흰 안상수가 일터를 옮겨 비운 곳에서 마련한 빈개
민절잔치이다. 빛밖에는 노순택, 박기수, 이재용 가운데
한사람 이 자리에는 모두 함께 하였다.

2014.05.21 24회광장조각회정기전 서울시립경희공미술관
2014.07.16 43회홍익조각동문회정기전 인사아트센터

201808.28 이거스튜디오미술관개관기념전 양평,
이거스튜디오미술관

2013.08.15 날개전. 이사. 프로젝트.
"날개.보행.이사.이상" 서울 날개전





어머니에게는 무거워 쓸모없는 나무 지팡이 이걸저걸 붙여
즐길 거리로 만들었다

2018.10.09 아나별인그랑그 시공, 국립한글박물관



내가 만든 책등을 보이고 내공필로 만든 몇가지를 파는 잔치
 국립현대미술관 새로운 연는 겁을 기리며 내가 만든
 공필들로 만든 건들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 마련한 잔치
 박박이는 김성태, 정홍비



- 2014.10.11
- 2014년제15회0000국제예술제아외드림미술전
- 0000국제예술제조직위원회, 안강생명포럼
- 2014.10.18 c-artmuseum 초대용인조각회전
- 양평c-artmuseum
- 2015.05.21시각의통섭, 제25회감각조각회전기전
- 안천아트센터, 서울

●■▲ 저년 국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모포서클조각공원, 모포
- 신천지미술관, 제주
- 현암미술관, 장흥
- 계몽문화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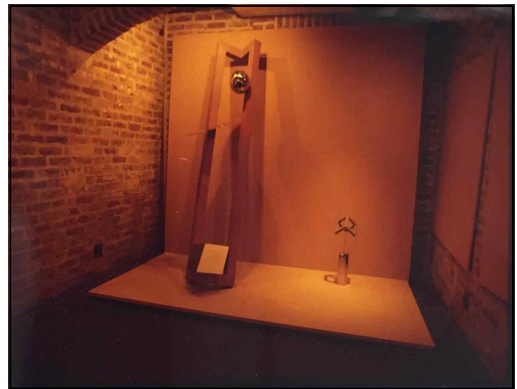


- 한국은행, 서울
- 안경파비스, 서울
- 현대 보인 사옥, 인천
- 낙동강변 공원, 부산
- 태오드림 현대미술관, 태원토

●■▲ 나라밖에서 보임

- 1977.08.06 한국 미술 청년작가전, 필라델피아, 발치인스튜디오킴미술관
- 1979.02.13 한국 미술 청년작가회전, 파리, 국제미술회관
- 1979.03.21 살롱 위르양방당, 파리, 루생부르크 미술관
- 1981.03.26 한국현대작가전, 파리, 한국문화원
- 1984.02.27 한국현대조각 단면전, 도쿄, 한국문화원
- 1984.08.02 제23회 올림픽 기념 용인조각회전, 토포스예술한국문화원
- 1986.04.07 서울 현대미술 6인전, 도쿄, 갤러리 6
- 1989.02.14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시, 국립현대미술관
- 1994.02.02 책을 소재로한 미술전, 브라샤바, 베르킨
- 1996.08.27 나고야, 서울, 일체조형의 교류전, 나고야, 시인갤러리,
- 2000.01.15 머릿조각 0 ^ ^ 전, 서울, 파사데나, 델아비브
- 2001 안그전, 도쿄, 지저지갤러리, 오사카, 디디디갤러리
- 2002.02.15 영혼의 바람, 카투만두 네팔왕립미술관
- 2002.10.01 광장전 가수가이시도서관 문화예술 센터
- 2009 안일, 빅토리아, 세이셸공화국 프랑스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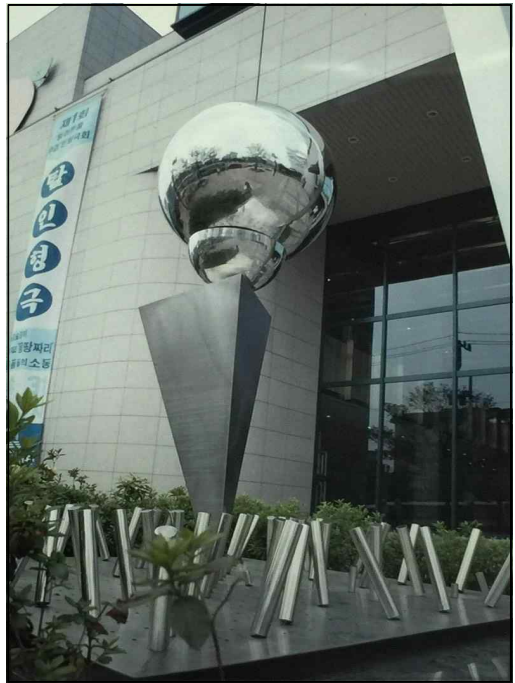
- 문화체육부, 서울
- 바자렐리재단(미바출.안류), 옛살프랑스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서울
- 국민대학교 건국대학, 서울
- 국민대학교 심교도서관, 서울
- 경기미술관, 안산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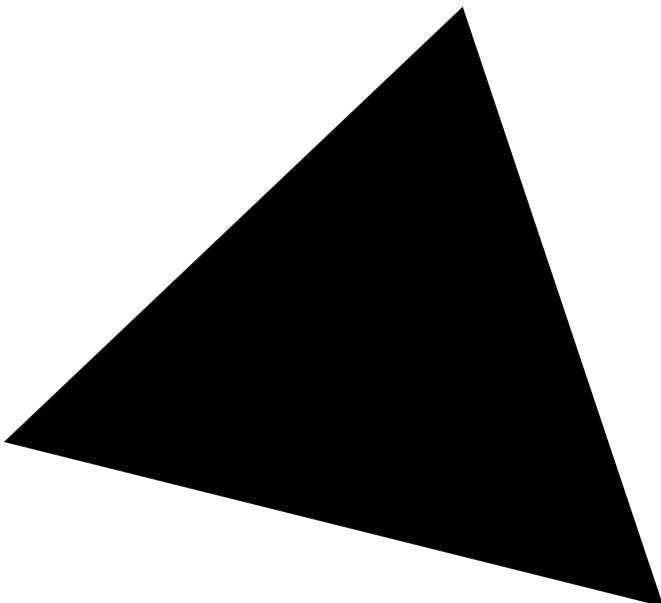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모포시영 조각공원, 모포



개몽문화센터, 서울





안근은빌, 서울



낙동강변 공원,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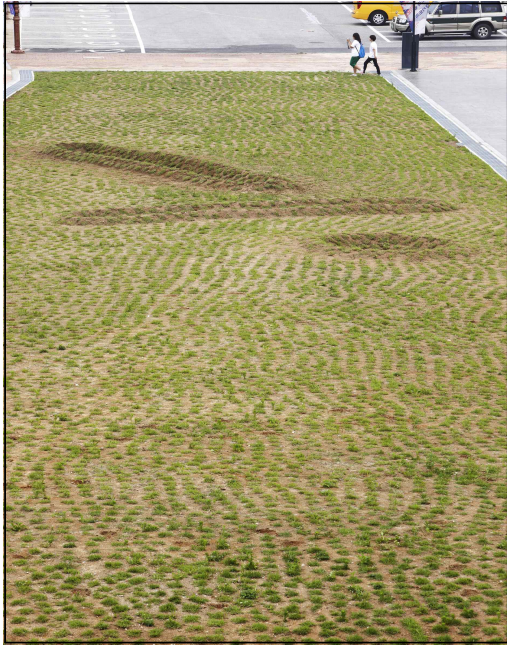
연대보원 사옥, 인천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국민대학교 심교도서관, 서울



경계미술관, 안산



●■▲ 마려경

공부리길길 만드, 1991,02

공부리길길은
비바리게보다 넓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부리길길은 비바리게보다 넓다

글쓰기의 미학 이야기 2019.11.15

글쓰기의 미학, 19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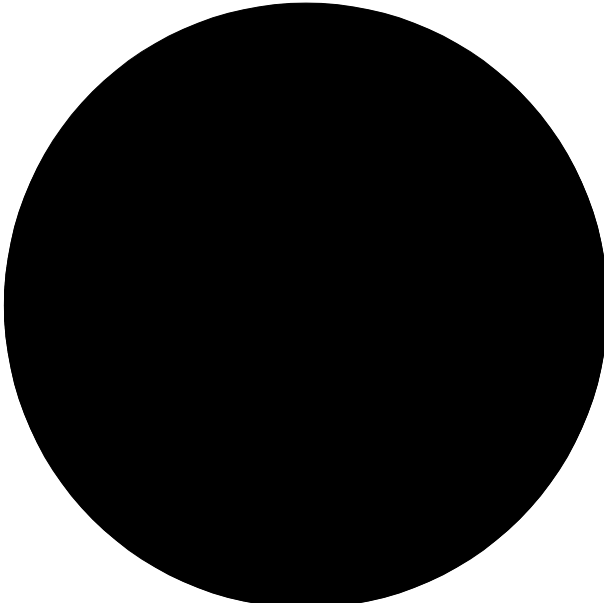


두서너개 예제, 1995.03

1424 04m01 21 1 2424
 2- n11 +4 2
 0 27
 22172 0421 2471 22H001
 1 + 1 1% 1
 2 1
 2121 1424 242401 04%4724 %4L 24 2121
 L 0 2 + 1
 04x12H 21 220 210 #21 0%4L 201 0424
 D 2 2 2 + - + 1%
 2 2 2 2 2 2
 2H 212 224%471 2171 222 200121 1470 0421
 2 1 2 + - 2 2 2 2 2 2
 24240424 2171 21% 142 2121
 D 1 1 2+ - 1
 2 2 2 2 2 2
 212121 2471 242171 2424
 2 1% 2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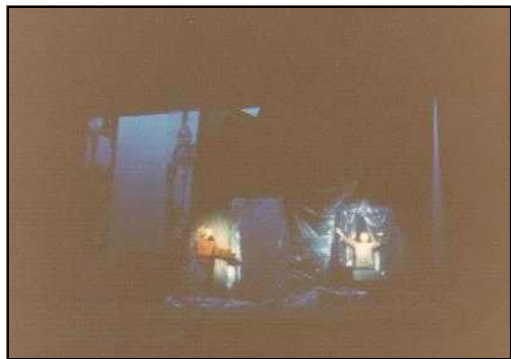
글쓰기의 미학, 2011.02

너 아예 내꺼 아다
 ✓ 2 2
 I AM YOUR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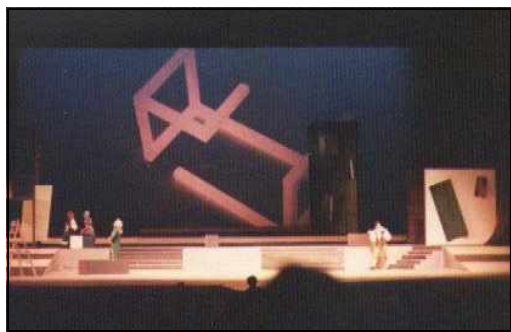


1202
 1202
 1202
 1202

오페라 '파우스트' 무대 마련, 서울, 국립극장, 1975.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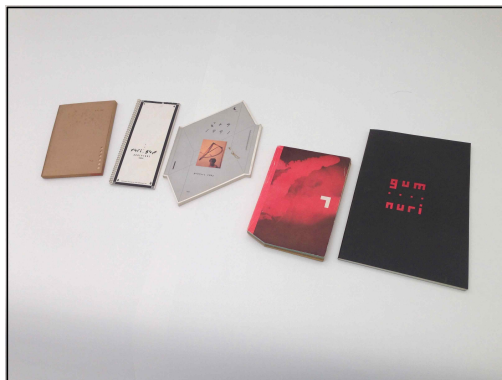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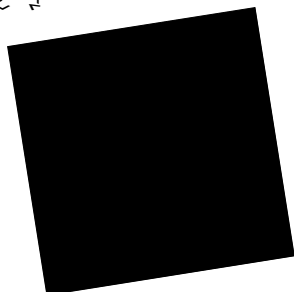
오페라 '사랑의 묘안' 무대마련, 국립극장, 1977.10.01



주간 '디자인 뉴스' 채이름 마련경, 1991
 책 길쭉 마련경: 한국의 자원 배분과 무역정책, 황남일 지음, 서울, 단국대 출판부, 1991
 책 길쭉 마련경: 무역정책론, 황남일 지음, 서울, 대원사, 1994
 책 길쭉 마련경: 월간 '디자인' 1996.11
 책 길쭉 마련경: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황남일, 이영무 지음, 서울, 무역경영사, 1997

●■▲ 지은 책

작실 채이름 씨인,
 엮은이 마련경비 센터 / 서너대 숙 / 서기 서게 / 만드세 서
 응세 쫓 / 글 서드러는 글



1 / 내모습을 위한 번주 / 굵부리 / 굵부리 / 한국미술청년작가회, 1977. 서울 / 250 x 240.5 밀리미터 / 29 쪽 / 사진식사, 식판 / 놀리 쫓기 / 4 쪽 x 내모습기 /

굵부리의 1977 작업으로 안쪽을 퍼면 실기 덩어리가 나타난다.
 단순한 네모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바뀌는 길을 드러내며, 스스로 입체이다



2 / 부리 1982 / 굵부리 / 안상수 / 마담, 1982, 서울 / 130 x 180.5 밀리미터 / 114 쪽 / 김병우역자, 식판 / 퍼프칭 / 158 쪽 / 글; 1,000 굵부리가 1982 해 평면과 입체 길을 서로 섞어 만든 실기를 밝은 경들이 실려 있다.
 모두 폴라로이드를 받아 썼다.
 붓에 처리한 바탕 경의 맑은 조은 여러 노랑으로 문어한 두 기구로 되짚었다.
 거칠고 부린 종이와 사개종이에 받아 빛깔과 손대는 느낌이 낫다.
 이 책 마련은 안상수와 김장섭이 함께 하였다.



3 / gum...nuri / 고무키 / 안상수 / 안경희스,
1987, 서울 / 180(위쪽) x 270(높이) x
200(아래쪽) 밀리미터 / 422 쪽 / 활자 조판,
석판 / 피프팅, 사다리꼴로 자름 / 158쪽 / 값:
5,000 \$, 11.95 /
이 책에는 고무키가 1987 해에 만들어 보인 것들을 담은
빛깔과

그에 따른 조각의 길이 실려 있고, 운운과 나눈 이야기가
실려 있다.

것에 대한 고무키의 생각을 살펴 깨달을 수 있으며,
편지 디자인은 안상수, 박박안 배병우이다

그 때는 이미 잘 쓰이지 않던 활자 조판용 꾸러 짚은 것이
투두된다.

스인 글: 안경, 임기리시



4 / 고무키 1991 / 고무키 / 안상수 + 이순주 /
안경희스, 1991, 서울 / 170(위쪽) x 270(높이)
x 170(아래쪽) 밀리미터 / 275 쪽 / 선풍로 봉은
뒤, 석판 / 피프팅 뒤 여신 모로 나뉜 통스 자르기 /
168 쪽 / 값: 10,000 /
이 책에는 고무키가 1991 해에 보여준 작품들을 담은
빛깔과 길이 실려 있고,

저언어 1990년에 새로이 생각해낸 고무키를 주제로 만든
책이다.

여러 사람의 문음 400 여 가지에 고무키가 짧게 담긴
길이 실려 있어서

것에 대한 고무키를 살펴 깨달을 수 있다.

미술사가 정영모의 길이 실려 있고, 편지 디자인은 안상수와
이순주, 박박안 배병우이다.

편지들로 옮긴 문음과 당도 고무키 스타일로 옮긴 것이다.

스인 글: 안경, 편지, 임기리시



5 / nuri...gum sculpture / 고무키 /
베스켄라인 / theodore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2, 뮌헨 / 95 x
210.5 밀리미터 / 80 쪽 / 선풍로 봉은 뒤, 석판
/ 소용돌이 줄 붓기 / 44 쪽 / 값: \$10.00 /
이 책에는 고무키가 1992 해에 보여준 만든 것들과 길이
실려 있다.

미술사가 정영모와 joanne curia 가 고무키 작업에
관한 글을 실었고, 배병우와 이주언이 만든 빛깔을
담았다.

새로이 만든 고무키를 실음에도 뮌헨 베스켄라인에서
편지 디자인 하고 펴내었다.

스인 글: 임기리시



6 / 1 ° / 김부리 + 안상수 / 김부리 + 안상수 / 안그래픽스, 1993, 시음 / 150(위표) x 200.9(높이) x 150(아래표) 밀리미터 / 311 경 / 선풍기로 뽐은 뒤, 싯판 / 락폴칭 뒤 책 모양이 뽐 필칭 모서리 가운데 통스 자르기 / 216 쪽 / 값: 10,000 / 이 책은 김부리와 안상수가 1993 에 보여준 만든 견등을 받은 비경과 같이 싯판 있고, 책 하나에 앞쪽이 들어가 된것은 없다. 1, 김부리와, °, 안상수의 두가지가 함께 담겨있다. 이 책을 펴내는 일을 기리며 김부리는 경을공을 새로이 만들어 담아 놓았다. 1 에 있는 것은 김부리 스스로 쓴 견이고, 비박이는 유철오와 이주연이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쓰인 종이를 싯어 된 부채기 때문에 또 같은 책이 아니다 있다.

250(세로) 밀리미터 / 222 경 / 선풍기로 뽐은 뒤, 싯판 / 락폴칭 뒤 딱딱한 천 필칭 / 132 쪽 / 디자인 사진 / 안그래픽스, 19941131. 김부리 + 68 슬기로운 / 두루누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0228, 김부리



시로난경 / 두루누리,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50228, 김부리



1 / 타이틀 매치 김부리 15 홍정표 / 김부리 + 홍정표 + 김홍의 + 유진상 + 김상우 + 김예진 / 김홍성 / 서울시립미술관 / 2016, 시음 / 178(가로) x

타이틀 매치 김부리 15 홍정표, 서울시립미술관, 20150908, 김홍의, 유진상, 김상우, 김예진



●■▲ 정경

한경수의 조각에 관한 연구(1979.2. 싯사학위 논문) 평면형태의 연속적 배열을 통한 3차 공간형태의 응용(1983.2. 조영논총)

전환형태에 관한 연구 (1984.3. 조영노총)
 조명 공간에서 케네디 아트에 관한 연구 (1985.2. 조영노총)
 일체형태 지각에 관한 연구 (1986.3. 조영노총)

환경 조영에 관한 연구 (1987.2 조영노총)
 일체 형태의 평면 표현에 관한 연구 (1989.2. 조영노총)
 움직임에 대한 형태 지각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0.2. 조영노총)
 그 자신의 일체적 표현에 관한 연구 - 그 부피체의 개발을 중심으로 (1991.2. 조영노총)
 과학적 사고의 조형적 전환에 관한 연구 (1993.2. 조영노총)

일체의 양감과 표현의 조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조형개념 정립을 위한 지적 조형 영역과 그 사고의 확산 - (1994.2, 조영노총)
 4차원 그늘에 관한 연구- 움직임은 그늘 그늘 - (1995.2, 조영노총)
 전자시대의 조형예술에 있어서 실현적 사고에 관한 연구 (1996.2, 조영노총)
 전자 문자를 통한 비시각적 공간지각에 관한 연구 (1997.2, 조영노총)

표준자와 변용 조영에 관한 연구 (1998.2, 조영노총)
 상대적 시각의 영에 따른 조형적 상징 표현에 관한 연구 (2001.2, 조영노총)
 화상 출력 여건에 따른 전자 조영의 변환 (2002.2, 조영노총)
 평면 지각과 일체 지각 형성 모음에 관한 연구 (2003.2, 조영노총)
 그림과 그늘 함께 이어줄 수 있는 고풍 마련 (2004.2, 조영노총)

표와 표 사이 빈 곳을 이어주는 그늘과 일개 (2005.2, 조영노총)
 되버린 그림자와 뒤집은 그늘과 일개 (2006.2, 조영노총)
 위어진 날에 놓인 그림자 (2007.2, 조영노총)
 '뫼비우스(4328 해에 얻어짐)'에 알맞은 그늘 만들기 (2008.2, 조영노총)
 잘자러나 지렁이가 보는 그늘과 일개 (2009.2, 조영노총)

엮은 그늘과 볼로 그늘 그사이 (2010.02, 조영노총)
 몽영드레네는 그 부피그늘 (2011.02, 조영노총)
 비려진 그늘과 일개하기 (2011.02, 조영노총)
 그늘. 체. . . 실기당어로. 드레네는. 체. 그늘 (2013.02,

조영노총)
 움직임은. 그늘 그. 날그늘. 사이. 일개와. 일개. 만들기 (2014.02 조영노총)
 그 부피번개날터살퍼주러기4338 (2015.02, 조영노총)



●■▲ 함께 엮은 일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 조형발전 연구보고서 연구원 (H 조영연구소) 1977
 도림계곡관 전시 기본 계획 연구원 (도림계곡관 건립추진 위원회) 1984
 올림픽 대교 지명공모(우보계출단) 기획과 자문위원 1985
 세비아 세계박람회 한국관 지명실제(위원 건축) 자문위원 1991



●■▲ 엮어 찾기

서울시 제2기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3
 대구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4
 인천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4
 한국전력 수자원 전시기관 시설 심의위원 1994
 대구광역시 환경조형물 심의위원 1996.3.28

제3회 오프테스크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 1996
 광주시 지하철 역사 예술장식품 심의위원 1997
 제3회 오프테스크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1997
 제4회 한국 컴퓨터디자인대전 심사위원 1998.2.25.



●■▲ 다른 가르침

그 부피 작품 세계와 환경조건, 건축가단체 공위회, 태권. 형태는. 바르게 보이는 건인가, 한국인 테러디자인 일회, 케비에스 연구관.

환경조각, 영관공 이상 장교를 대상, 전쟁기념관,
형태와 공간은 바르게 보이는 집인가, 중등학교 미술교사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공부리+텍사스주지, 미술가와 애호가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과학기술재단. 19911220.
저예산 눈, 건축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대상, 경기대학교
과학전 사과의 조형전 전환, 디자인이 대상, 안과퍼펙스
보석사\보석사에 대하여, 학생과 교수 대상,
계원조형예술학교. 19941201.
시간언어, 학생과 튜터 대상, 서울 건축학교. 19950301
저예산 눈, 건축과 재학생과 교수,
서원대학교. 1995.1205
현대미술, 국민대 경영대학원, 1996
저예산 눈과 미술의 이해,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7
공부리의 조형교, 중등학교 미술교사 대상, 한기미술관,
1998.5
디지털 시대의 조형적 사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2000.3
디지털과 문화, 30.40대 지도층, 새사회네트워크,
2000.3.20
새로운 방식을 향해, 미술인과 애호가 대상, 한기미술관,
2000.5.20
건축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한국건축학교,
2000.6.26
타이포디자인 쉼터, 중구중앙미술학원
2001.12.24
생마기, 중구, 우한과학기술대학,
2005.5.25
민진 안경 어울림, 홍익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0708
x4 쉼터, 홍익대학교,
2013.11
길과일, 파주하이브리드미술관,



●■▲ 아래 민절들 1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김혜진이 지난해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가 다룬 1은 2대로 따른 것이며, 빛바랜
김상덕, 작치알링 마린델은 김홍성이 함께 하였다.
그 뒤 이 글들은 서울시립미술관(방행인;김홍의 관장)에서
저년 책 타이틀 매치 공부리 15 홍정효에 모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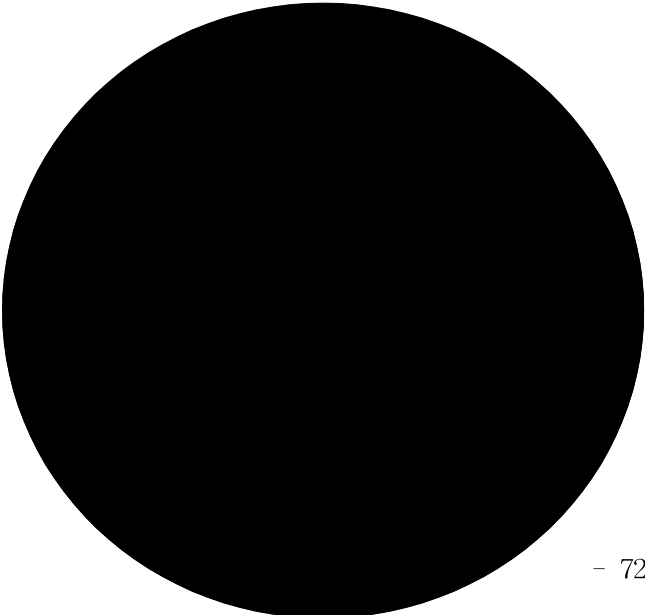
부리.길길 43400913-4348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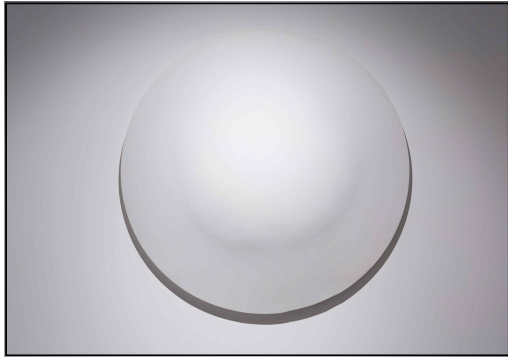
<부리.길길>은 작가의 작업관에 큰 변화가 일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작업 중 하나로
공감이나 일터에서 버려진 장소 덩어리들을 전시장으로 옮겨
갖 사물에 내재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창출해낸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 작가는 기존의 <부리.길길>을 새로운 공간과
틀에 맞게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 오브제들은 권위의 효용성을 빈어나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기호로 일이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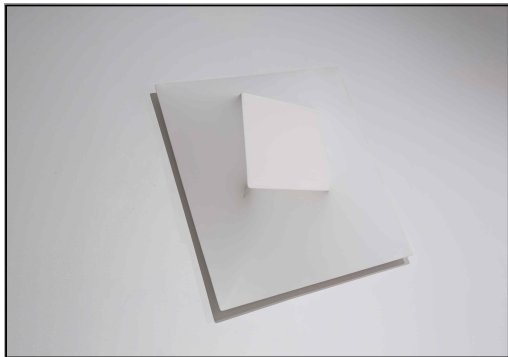
부리.웅짓잉 43310608-43480908 02



부리.웅짓잉 43310608-43480908 01



부리.웅짓잉 43310608-43480908 03



작가는 이번 전시에 '하늘, 땅, 사랑'의 개념을 최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 중 하나로 10미터 가량의 흰색 당길과 하늘을 뜻하는 동그라미, 땅을 뜻하는 네모, 사랑을 뜻하는 새모 당어깨를 흰색 구슬뿔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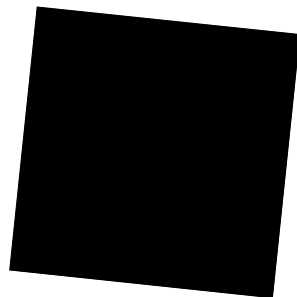
<부리.웅짓잉>이라는 제목에서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작가는 흰색 길에 들어가 도화지처럼 깨끗한 공간 안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도형임을 한다.

작가의 깃뻛치던 스스로 '하얀뿔' '하얀노래'가 되어 나와 너의 살아 움직이는 경이자 노래이자 몸짓이든...

부리.땅잉경 43480908 01



부리.웅짓잉 43310608-43480908 04



부리. 땅잉경 4348090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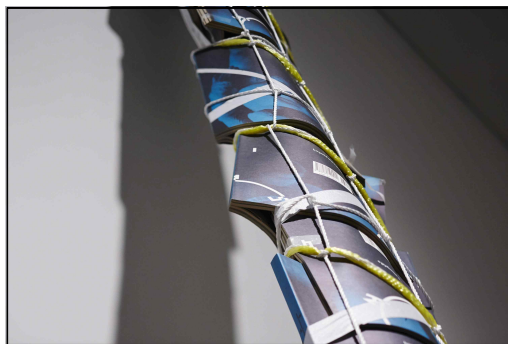
부리. 땅잉경 43480908 03



작가가 '하늘. 땅. 사랑' 개념을 적용한 작품으로 철저하게
중력, 땅덩이 가운데로 당기는 힘을 이용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몸감을 부는 순간의 최소한의 행위만
할 뿐 인위적 개념을 최소화하였다.
기다란 평면 화폭과 경사를 이룬 원형 탁자를 두고 몸감을
올려 중력을 가시화 한 작가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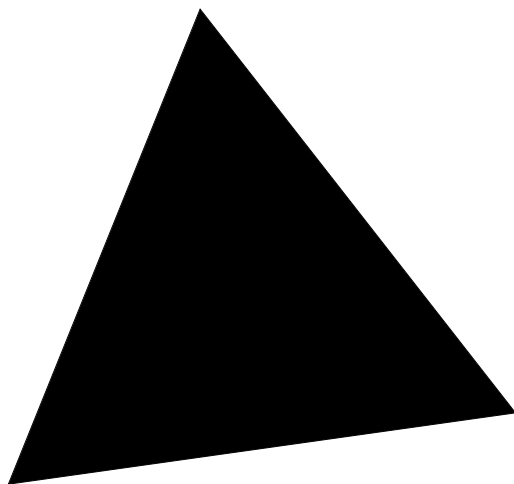
바른 작품을 완성하였다.
"떨림이 없는 곳에 어떻게 굳은 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작품의 구성은 결국
"소실점은 수평선이 아니라 땅의 중심에 잡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작가의 생각이 작품으로 구현되었다.

부리. 책- 보고서/보고서 43480908



'하늘. 땅. 사랑' 개념을 적용한 <부리. 책> 연작이다.
이 작품은 그 중 첫 번째로 1988년 번 안살수와
공동창간한 『보고서/보고서』의 실험적 표제들이 보이던
책을 펼쳐 4미터 가량의 기다란 쇠 막대기에 엮은 것이다.
작가에게 『보고서/보고서』는 그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분방과 자신감,
그리고 상상력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책의 제목인 '보고서'는 리포트(report)의 의미와 '보고서,
보고 나서, 만든다'의 동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보고서/보고서』 중 14호를 활용하여
책 기둥같은 형상을 제작하였다.
책 뿐 아니라 발견된 연봉제,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병합하고 병치하는 방식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작품에 적용된 작가의 대표적 작업 방식이다.

부리. 책- 스키투온 눈 . 시로 나는 경 43480908





〈부리.책〉 연작의 또 다른 작업인 〈부리.책-슬기로운 눈과 시로 나눈 경향〉에는 작가 트위의 미감과 교감, 예술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를 뒤흔트린 뒤로 얻은 작업으로, 두 종류의 교과서 중 〈슬기로운 눈〉에는 꿈의 탄생과 작가의 철학적, 개념적 주장이 그가 만든 길로로 당겨 있으며 〈시로 나눈 경향〉에는 작가의 조형 철학과 학생들, 지인들과 나눈 대화와 생각들이 한결길 실감들로 실려 있다.

트위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예술계 종사자들과의 온라인 좌담과 같은 행위들을 고스란히 편집 없이 기록으로 당기도 한 작가는 크러한 자신의 삶과 예술이 담긴 책의 본분이 드러나도록 내지를 펼쳐 작가의 세계관과 작업관을 관객에게 열어 보인다.

‘배워 나누자’ ‘만들이 낳들이 배우도록 함께 나누자’, 곧 또 다른 생각을 위한 바탕으로 역할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

부리.책-배우미.평글들 43480908



〈부리.책〉 연작 중 작가가 심사하거나 지도해 온 학생들의 맞춰 논문과 작가가 소장해 온 사진을 재조합 한 작품이다. 작가는 오랜동안 시구 중심으로 편성된 교문 환경과 지식의 평등을 수동적으로 수드하는데 익숙한 우리 의 모습을 경계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만든 걸을 거꾸로 널리 알리기를 바라며 기존의 지식을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다. 단순한 정보 수일, 분류의 차원을 뛰어 넘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쓸모와 가치가 있는 지식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영원을 담은 작품인 셈이다.

내.예.술.안.잔.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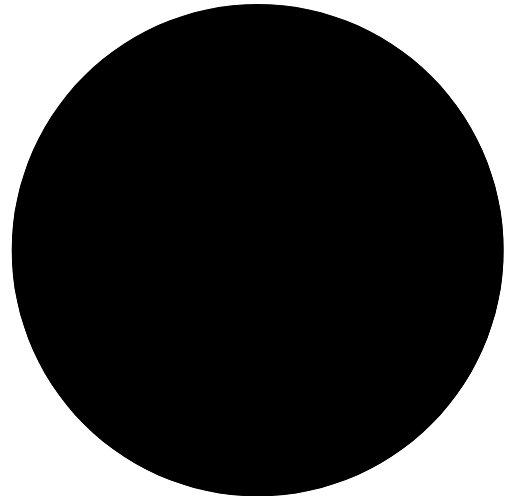


1997년 11월 27일,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작가는 홍익대학교 4학년 조각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예.술.안.잔.반.개’라는 제목의 시인문제를 전산망에 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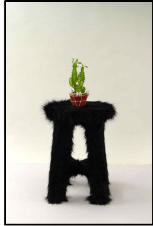
작가는 이상(李箱 1910~1937)의 작품 몇 가지와 자신의 생각을 감상블라주 한 일공 문제를 학생들에게 띄우고,

작가 스스로 전할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한국미술계의 변화 중심에 선 도전적 역할을 수행한 그 부리 작가는 권위와 억압의 시대에 기존 형식체계에서 초현실적이라만 칭 자유훈고 파격적 행보를 보였던 이상과 그 모습이 담겨 있다.



부리. 길상 43300714



작가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뇌와 생각들을 읽고
 걸터앉을 수 있는 길상을 만든다.
 이 작품은 편안하게 앉을 때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따듯함을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인간이
 가지는 휴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입점어의 것짐거리도 느낄 수 있는 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했다

부리. 살 43480521



작가는 눈을 치우는 살에 본인이 접기 구도했던 잡지
 Wired와 술을 함께 담았다.
 잡지 『Wired』는 최신 기술, 사회전 기술, 광고 컨텍츠가
 주를 이루는 잡지이다.
 본살처럼 많은 것을 치우는 것이 일인가
 그 위 그 아래 가장 앞서 나갔던 책 와이어드와 술을 담았다

부리. 빈 43420625



작가의 집 안으로 고인이 된 빈 이규철이 창여한 전시됐어

배달되었다. 작가는 책 봉투를 뜯지 않고,
 뽕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색연필을 엮은 끈으로 걸어
 뒀었다.
 돌아가신 빈 이규철 안으로 책이 내 집에 배달되었다 나는 그
 봉투를 뜯지 않고 뽕현대미술관에서 산 색연필과 끈을
 엮어 걸었다

부리. 다리 43421012



작가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먼진 아가씨 옆을 지나간다고
 한다. 그 아가씨는 다리 한 쪽을 잃어 모발을 짚은 채
 걸어가고 있었다.
 작가는 집으로 돌아와 본인이 신던 양말을 길게 당겨 새끼
 다리를 제작하였다.
 어린 빛 짙은 치마에 나뭇잎을 두 손에 걸친 먼진
 아가씨가 바쁘게 지나갔다
 다리 하나가 없다
 나는 내 양말을 길게 당겨 새 다리를 만들었다

부리. 길상 43460523



작가는 연출가의 야외용 길상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을 길상에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는 작가가 사용하던
 당배 대롱을 붙여 작가만의 길상을 제작하였다.
 마치 그 길상이 작가의 개인 걸처럼...
 바깥에서 쓰는 길상을 안으로 끌어들여 동그라미 네모 세모
 길들을 풍뵈 떠로 엮었다...
 당배 대롱은 우뚝머리 만질비의 끈

부리.길상 40410913



작가는 자신이 제작한 책 『별고시/보고시』 파본을 재료로 작가만의 길상을 만들었다.
『별고시/보고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작가가 만든 길상의 갈개로 제작했 하였다.
가장 열심히 만든 책 『별고시/보고시』 한쪽이 잘못되어 버리게 되었다
길상의 갈개로 만든 셈이다

부리.지팡이 43470116



작가는 어머니의 무거운 나무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이걸처럼 보여 새롭게 만들었다.
이아기를 조각들에 담은 작품이다.

부리.보고시/보고시-1 43450114



작가는 번 안상수와 함께 제작한 책 『별고시/보고시』의 창간호를 가지고 해외로 향했다.
이 작품은 여행 중 비행기와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소포등, 이이폰, 수저, 칫솔, 펜등을 『별고시/보고시』에

없이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고누리와 안상수의 초상이 들어있다.
안상수와 함께 만든 보고시/보고시 친척과 안상수와 함께 간 나들이에서 얻어 쓰고 버릴 길들로 함께 얻었다

부리.눈.무개 43340813



작가에게 휘어진 눈.그 자는 마치 차들이 오는 도로와 같다.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그 눈금을 따라지나가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룬다. 휘어진 자 위에 놓인 모형자동차들은 균형감 잃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작가의 의도대로 나무에 매달린 벌레집 형상으로 우리에게 시각적 유희를 안겨준다.
휘어진 눈.자에 작은 수레들로 벌레집을 지은 셈

고누리길은 빙바리게보다 넓다 4323-43400913



작가의 대표작 이렇듯 1990년대 초반 작가의 3차원 길들에 관한 논문집에서 처음 언급된 표현이다.
"고누리길은 빙바리게보다 넓다"의 의미는 3차원 일체의 길은 2차원 평면에 새롭게 구현하는 배열에 관한 길로, 그 자 위치를 지을 때 시공간의 별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려는 작가의 생각을 기본으로 한 길이다.
여러 종류의 길들과 쓰는 법을 창안한 작가는 바탕이 되는 길들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이 작품으로 응축하여 표현하였다.

고누리길은 빙바리게보다 넓다

귀 맛고 보아도 들린다 4326-43400913



작가는 움직이는 끈에서 영감을 받아 끈을 꿰는 것을 만들었다.
 끈을 꿰는 것을 만들 때 착안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이질트 실험문자로 새겼다.
 움직이는 끈을 꿰는 것을 만들 때 보는 것만으로도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소문을 에센트 끈을 재료로 새겨본 것이다
 귀맛고 보아도 들린다

부리.뭉 43410519



작가는 봄에 타버린 솜뭉치를 다시 세우는 데 쓰는 비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리 뭉>을 제작하였다.
 뭉이 담긴 통에 봄은 떠와 푸른 떠로 엮어 봄을 깎는 소화기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 무스개가 깎든 작업이다.
 봄뭉 솜뭉치를 다시 세우는 데 쓰는 도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자 만든 것이다
 맑은 뭉은 봄은 떠와 푸른 떠로 엮어 봄기는 뭉뭉 엮어도 된다

부리.싸움뭉 4329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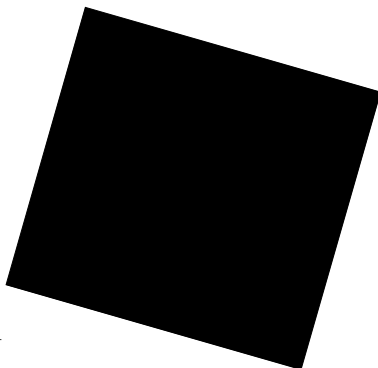


작가는 전쟁에 등장하는 배와 낱통(비행기), 수레(차)등을 엮어 고유의 기능을 일깨워 준다.
 분명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보는 작은 장난감들이더라도 한국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작가는 스스로 즐겨 있던 옷에 작은 장난감을 엮어 붙여 무게감있게 매달아 비록된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싸움 터에 쓰이는 배, 낱통, 수레 등을 엮어 슬픈 무게 하강자 한 것이다.
 작은 장난감들이라도 입고 있던 옷 뒤에 붙여 무거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슬기로운 눈 두루누리
 시련나는 경의 두루누리



작가는 자신이 가려지는 배우미들, 예술계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 담긴 생각과 자신의 예술관을 담아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그의 삶과 예술 영역에 수식된 상인 비경들을 널리 알리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것이다.
 슬기로운 눈 두루누리 시련나는 경의 두루누리
 위 책들은 배우미들을 가르치며 갈등과 나눈 생각과 경험등을 엮은 것이다. 가까운 빈들의 많으며 도움도 당아인다.





지난 타임캡슐 공부리 1도 홍정표 작치에 연건들을 모아둔 작은 방이다. 빛바랜 김상덕

●■▲

위에 쓰인 모든 글과 빛바랜 공부리가 함께한 민진잔치 때에 나온 필기와 책들에 실려있다.

나눔에 따라 걸친 민진들이 있다.

보기를 들며 다른나라에도 보였단다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자니게 되어 다시 보게 된 건들이다.

빛바랜 민진들 바탕은 거의 비갠이 있는 건들이나 책영 못을 때는 모두 검은 빛영 받는다.

경태도 빛바랜 민진들을 발견이나 정림지 않은 민진들은 나 또한 날 배운 도우미들이 짠 건이다.